



다른 것과 이상한 것

프롤로그

다른 것과 이상한 것 · 황인욱

1

아름다운 비토섬의 핏빛 이야기 · 황인욱

2

고대 사회의 장애 유아 살해 전통 · 윤삼호

3

독일의 나치 <T4> 프로그램 · 황인욱

4

우생학과 일본의 「우생보호법」 · 황인욱

5

격리의 시대, 광인옥(Madhouse)과 보호소(Asylum) · 황인욱

6

언론은 장애를 어떻게 왜곡하나? · 윤삼호

다른 것과 이상한 것

안경과 목발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장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만드는 특별한 날이지요. 십이 년 전 장애인의 날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와 장영희 교수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들어 볼까요?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목발입니다. 저는 평생동안 걸을 때 목발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안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근시라서, 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안경을 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가도 목발을 짚으면 저를 1급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안경이나 목발은 똑같습니다. 단지 제 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조장구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안경을 쓰든 목발을 짚든 장영희는 똑같이 인간 장영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사랑받고 인정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회를 누리고 싶어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천히 걷거나,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리고 함께 살기 불편하다고 싫어하고 차별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취직시험에 불합격시키고, 오갈데없는 장애인 공동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동네에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가 주는 편견의 장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눈을 돕는 안경과 불편한 다리를 돕는 목발, 이 두 개의 보조도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공평한가요?

오른손과 왼손

통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세상의 많은 물건은 오른손잡이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가위를 쥐기도 힘들지요. 계량컵을 왼손으로 쥐면 눈금이 보이지 않지요. 컴퓨터 마우스도 왼손으로 쓰기는 불편하고, 주택의 문도 손잡이는 거의 왼쪽에 달려서 오른손으로 열어야 몸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지요. 통계적으로 세상의 약 12%로 추정되는 왼손잡이에게는 꽤 불리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왼손으로 손가락을 잡거나 젓가락질을 하면 혼을 내고 오른손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왼손잡이를 사회적으로 별종 취급을 했던 시대가 있었지요.

오른손잡이가 볼 때 왼손잡이는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면 불편해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비정상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오른손잡이 아버지가 왼손잡이 아들에게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고 알려주는 일은 예전에는 흔한 밥상머리 교육이었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운동선수들처럼 왼손과 왼발을 잘 쓰면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을 주로 사용한다고 따가운 시선을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많이 사라진 왼손잡이의 설움, 그것은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생물학적인 속성이 비정상적으로 분류되거나 부정되는 차별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생김새와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정상이고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는 편견도 같은 뿌리에서 생겨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세계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부모가 불교(혹은 이슬람교)에 더 호감을 느끼는 자녀에게 다른 종교는 비정상이라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은 각자의 양심에 따른 것일 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종교적 관용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신념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타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무자비한 전쟁을 수세대에 걸쳐 직접 겪고 목격했던 인류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주말마다 성당에 나가 미사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행하는 일이지만, 불과 백오십 년 전에는 이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불법 행위였다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배웠으니, 천주교를 믿었다고 천주학생이로 몰려 박해를 받고 천주교 신자들이 폐죽음을 당해야 했던 시절을 알고 있지요? 서울에 있는 절두산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분위기로 보면 단지 서양 종교인 천주교

① 1866년부터 1873년 사이에 벌어졌던 병인박해를 말한다. 천주교에 대한 4대 박해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박해로 가장 가혹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남에 따라 7년간 지속해온 박해도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에 베르뇌·다블뤼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 9명과 신자 2,000여 명이 순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국에서 8,000여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를 믿는 것만으로 정신이상자이자 사회의 돌변변이로 간주되어 마치 사회의 역병을 끌어내듯 천주교 신자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조선의 주류 지배층에게 천주교 신자들이란 일종의 정신병자, 즉 혐오스러운 정신장애인들이었던 거지요. 치유불가능한 정신병자들은 역병을 퇴치하듯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왜 인류사에서 자꾸만 되풀이되는 걸까요?

아직도 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그리고 종교 분파들 사이에서 종교적 신념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전쟁과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신앙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이고 이단이며 악입니다. 나와 다른 생김새, 나와 다른 신념,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그리 너그럽지 못합니다.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 족 사태에서 보듯이 현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소수민족에 대한 야만적인 인종청소와 종교박해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양식이 어떤 사회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박해와 박멸의 대상이 됩니다. 인종차별, 종교박해 등 모든 차별과 박해가 그렇듯이,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과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정신 상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주류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야말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편견은 학습되고 전파되고 공유되는 상대적인 문화 가치에 불과합니다. 눈동자가 파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색 눈동자가 별나 보이고, 눈동자가 갈색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파란 눈동자가 별나 보이는 것처럼,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다수라는 것만이 사실일 뿐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류와 비주류

흑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백인들에게 정복당한 이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 노예로 팔려 나가던 시대의 흑인들은 오늘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차별과 혐오와 학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혼혈인들을 엄청나게 멸시하고 차별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

수 인순이나 윤미래처럼 지금은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혼혈스타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와 과거 혼혈인으로서 느꼈던 설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혼혈인에 대한 대중들의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백인과의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흑인과의 혼혈인이나 이슬람, 동남아시아 인종과의 혼혈인들은 지금도 편견 가득한 시선과 상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혼혈인이나 외국인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렵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장애인과 친구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흑인 혹은 혼혈인과 친구되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흑인들은 세계의 지도자로, 아이돌로 존중 받으며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한 지위를 생각하면 아마도 흑인 친구를 두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은 빠르게 사라지고 같은 인종 안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오래 남을까요?

소수민족과 장애인종?

백 번 양보해서, 흔히 보는 사람과는 다르게 생기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다른 행동양식과 문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을 각각 별개의 ‘소수 인종’으로 분류하기로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세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인종 집단들, 즉 백인종과 흑인종, 황인종 사이의 인종적 차이보다도 적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요? 흑인과 인디언들이 그러했듯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이해 속에서 더 이상 별종이 아닌 친구이자 이웃으로 충분히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종’ 차별을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학습되고 전파되는 문화적 편견입니다. 옛날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편견을 전파하고 대물림했듯이, 우리도 장애인들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인의 체형, 문화, 관습, 취향에 맞게 세계 모든 시설을 구성한다면 과연 비아시아인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반대로 인구 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동원되어 세계적으로 강대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주류인 백인들의 체형, 문화, 관습, 취향에 맞게 전 세계 모든 시설을 구성한다면 과연 우리 동양인들이 차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백인들의 편견을 넘어 흑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듯이, 장애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모든 부문에서 동등한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 생각해 볼 문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독특한 외모와 특별한 습관, 행동방식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상하고 잘못되고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다수의 시선이 문제일까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 흑인을 바라보는 백인 주류 사회의 시선, 동양인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시선, 조선인을 바라본 일본제국주의자의 시선이 문제인가 아니면 장애인으로, 흑인으로, 동양인으로,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인가요?

외면과 내면

“겉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서양 속담)

사람들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말을 하면서 실없는 웃음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면서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이 지능지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뇌병변 때문에 생기는 이런 운동장애는 사람의 인지 기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를 어금니에 문 채로 말을 해 보세요. 말이 어눌해지고 벌어진 입 사이로 침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놀림이나 말이 평소와 달라

졌을 뿐이지 생각과 정신은 평소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 장애인 중에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21살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그후 사지가 마비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블랙홀 이론 등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서 그가 남긴 위대한 과학적 업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개막식에서 그가 했던 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장애인 올림픽 게임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며, 표준적이거나 평범한 인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은 인간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은 육체적 성취에서부터 이론적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서 무언가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패럴림픽 게임은 선수들이 뛰어난 능력을 뽐내고 펼쳐서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탁월함과 우정과 존중을 기념합시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처럼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우리는 그저 평범한 별의 아주 작은 행성에 사는 원숭이의 진화된 품종의 하나일 뿐입니다.(We are just an advanced breed of monkeys on a minor planet of a very average star.)”

스티븐 호킹은 물론이고 베토벤, 에디슨, 헬렌켈러 등 흔히 장애인으로 분류되었으면서도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큰 재능과 인격으로 인류를 위해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이상한 별종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이며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바보로 여기거나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우월한 시선을 거두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종족이면서도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독특함과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퍼그와 닥스훈트

여기 진돗개와 푸들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푸들처럼 귀엽지는 않지만 늠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습니다. 푸들은 진돗개처럼 빼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진돗개와 푸들 중에 누가 더 멋진가’ 하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뭔가 질문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닥스훈트와 퍼그가 있습니다. 진돗개에 비해서 닥스훈트는 다리가 짧아 어딘가 난장이처럼 보이고, 푸들에 비해서 퍼그는 털도 별로 없고 입이 보통 개와는 달리 속 들어가 있어서 개의 생김새로 보면 뭔가 기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닥스훈트가 징그럽게 생겼고 퍼그가 혐오스럽게 보이나요? 이런 종류의 개들이 생김새 때문에 차별을 받고 학대를 받나요? 아니지요? 이렇게 개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다르고 다양해서 개성 있고 귀엽다고 느끼는데 왜 사람들은 생김새의 다양함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걸까요?

달라서 아름다운 것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달보다,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푸른 행성 지구가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리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코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피부색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에 세상은 더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The best and most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cannot be seen or even touched – they must be felt with the heart.

–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

비토섬에 숨겨진 핏빛 이야기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57년 여름,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 섬에 건너가 개간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비토리 및 서포면 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스물 일곱 명이 희생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진다. 1957년 8월 28일 벌어진 이 참혹한 일로 인해 아름다운 섬 비토는 피에 물든 학살의 섬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센인들의 인권보호단체인 '한빛복지협회'는 소록도 84인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 사업과 함께 비토섬 28인 학살사건을 앞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사건으로 손꼽고 있다.

비토섬

비토섬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너비 287.4ha의 섬이다. 섬 전체가 동물 모양을 띤 곳이 많아 토끼섬, 거북섬, 별학섬 등의 별칭이 있으며 제일 큰 섬은 '토끼가 비상하는 형상'이라 하여 비토섬이라고 부른다. 섬은 비옥한 농토와 굴·바지락이 많이 나는 갯벌을 아우르고 있어, 위아래로 나뉜 2개 마을 153가구 450명을 너끈히 먹여 살린다.

1949년경 전남 소록도와 여수 애양원 등지에서 완치된 음성 나환자들이 살 길을 찾아 섬에서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경남 사천군 실안동 해안에 영복원이라는 집단정착촌을 세웠다. 6.25 전쟁을 거치며 당시 '나환자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곳에 한센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1957년경에는 72세대 32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삼천포 중심지에서 해안선을 끼고 이십여 리나 들어간 산비탈에 있던 영복원은 국가 보조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힘닿는 대로 주변 미개간지를 농토로 개간하고 가축을 기르며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나 넘쳐나는 사람들을 감당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이들은 바다 건너 바라다 보이는 사천군 서포면 비토리 섬으로 눈을 돌렸다. 실안동 해안에서 뱃길로 한 시간 안에 닿는 이 섬은 넓이가 80만 평 정도로 인천 강화도에 버금가는 꽤 넓은 섬이었고, 그중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과수원과 농장터 등 무연고 임야도 6만여 평이나 되었기 때문에 영복원생들은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 1956년 11월경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 임대' 방침이 내려지자 영복원은 비토리 귀속임야 22정보를 임차하겠다는



▲사천 비토리 위치도



▲한센인들이 개척하려 했던 땅은 영복원에서 바닷길로 4킬로미터쯤 떨어진 비토리 하봉이었다.

뜻을 경상남도에 전달하였다. 경상남도는 이듬해 7월 12일, 임차주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복원은 아직 많은 유희지가 남아 있는 섬의 땅 가운데 10여 정보만 임의로 개간하여 농장을 만들고 자활을 이루려고 계획을 강행하였다.



▲영복원. 멀리 바다 건너 보이는 섬이 비토리다.

1957년 8월 8일 영복원생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비토섬으로 넘어간 한센인 선발대 36명은 개간 대상지 근처에 대형천막으로 임시 숙소를 짓고 취사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영복원은 삼천포 경찰서와 서포지서에 입도를 예고하고 8월 22일부터는 약 70여 명의 한센인을 비토섬으로 보내 본격적으로 개간을 시작했다.

“그때 마을 총무였던 허판개 씨가 ‘농토가 없으니 바다 건너 섬으로 가 고구마와 보리를 심자’고 제안해 환자 60여 명이 동남하러 다닐 때 쓰던 배 3~4척을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경남 사천 영복원 지명석 씨의 증언)

갈등의 뿌리, 개척지와 굴 양식장

당시 사천군 서포면에 속했던 비토섬에는 123가구에 81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주민

들은 반농반어 형태로 생활했는데, 1952년부터 중앙수산시험장에서 굴양식 시험 장소로 선정돼 국고를 보조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영복원에서 임차해 개간하려던 땅 바로 앞에 이 굴양식장이 있었다. 하봉이라 불리는 이곳은 비토섬 중에서도 동쪽 끝으로, 본 마을에서는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또 당시에는 민가가 3채뿐이어서 영복원 측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 외로 격렬했다. 한센인에게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비토섬 주민은 이들이 섬에 정착하면 굴양식장 사업이 피해를 보고 해산물의 판로가 막힌다고 주장하면서 개간 작업을 중단하고 섬에서 당장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한센인들을 위협하였다.

8월 24일 서포지서는 영복원 대표를 불러 허가를 받지 않은 개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27일까지 퇴거할 것을 통보했다.

8월 27일에도 개간 작업이 계속되자 현지 경찰은 퇴거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공포탄을 발사하였고, 비토섬 주민들의 대응도 점차 과격해져 개간 작업 중인 한센인을 향하여 “막사를 불태워 버리겠다”, “배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등 막말과 고함이 이어졌다. 영복원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 100여 명에 달하는 한센인들을 비토섬으로 보내 진지전을 펼쳤다.

섬에서 버티기를 계속한 지 일주일이 되어 가던 8월 28일 오후 2시, 흥분한 섬 주민 300여 명과 서포 주민 200여 명이 죽창과 낫, 팽이 등으로 무장하고 징을 치며 개간 현장으로 몰려와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때마침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고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사태는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재차 개간 현장을 습격하여 투석전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일부는 이때도 다시 죽창, 낫,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인원도 2백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수에서 밀린 한센인들이 천막 안으로 도망갔다. 한센인들을 천막까지 쫓아간 습격자들은 천막을 무너뜨린 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창과 몽둥이었다. 그날 주민들의 습격으로 한센인 27명이 숨을 거뒀다.” (《한겨레 21》, 2006)

그때 섬 주민들에게 맞아 턱이 부러진 조희상(당시 34세) 씨는 “아직도 그때 일이 어제처럼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저놈들이 100명 넘게 시커멓게 모였더라고. 징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환자 몇 명이 돌을 던지며 저항했어. 그렇지만 그런 일이 터질 줄 우리들 알았겠나.”



▲ 생존자 조희상 씨의 얼굴은 그날 입을 상처로 뒤뜰린 모습이다. (사진:한겨레21)



▲ 비토리한센인학살 생존자 조희상 씨가 학살 현장에 놓인 비석을 가리고 있다.

타고 있었다. 한센인들은 하나씩 무릎이 꿇린 채로 팽이에 뒷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곡괱이 날이 빗맞았는지 그는 사흘 만에 깨어났다. 할머니는 “얼굴로는 구분할 수 없어 평소 들고 다니던 고무줄을 보고 남편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조씨는 남자들 밥해주러 섬으

로 들어갔던 형수 김쌍이 씨와 육촌 동생 조덕상 씨를 이날 잃었다. 이 사건으로 영복원생 26명(남 25명, 여 1명)이 죽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현장에 있던 원생 중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천막도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한센인들은 소나무숲 언덕에 세운 텐트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주민들이 텐트를 무너뜨리고 천막 안으로 죽창질을 시작했다. 흥분한 주민들은 엷어진 텐트에 불을 붙였다. 누군가 “산 사람은 나라”고 소리쳤다. 조 씨는 바닷가로 도망쳤다. 3~4명이 죽창과 돌을 들고 쫓아왔다. 그는 돌에 엉덩이가 찍혀 넘어졌다. 이번엔 얼굴이 돌에 찍혔다. 턱이 네 동강으로 깨져 덜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이 뒤로 묶인 채 물가로 끌려 나왔다”고 말했다.

누군가 “느그들 좃지”라고 물으며 조 씨를 불가로 데려갔다. 불 속에서 주검이

희생자

이날 밤 9시경 경남 경찰국장이 직접 지휘하는 현지 경찰이 상륙, 사건은 수습에 들어갔으며 부상자들은 이튿날 영복원으로 옮겨졌다. 영복원이 자체 조사한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천 비토리 사건 희생자 명단^①

최자경, 박종식, 이대식, 주또준, 이만춘, 이봉춘, 신원미상, 정치일, 김영호, 김권호, 김도용, 조덕상, 김영식, 김성덕, 이종태, 김쌍이, 김영수, 윤한옥, 황상백, 배정실, 한중문, 강양구, 김연실, 김형모, 김재경, 김정환, 이필남

비토리에서의 한센인 학살사건은 이전 사건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영복원의 300명의 환자들이 빈약한 시설 때문에 비토리 섬으로 집단 이주하였고, 4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이들의 이주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량학살 사건을 일으켰으며 섬의 청년 91명이 구속 송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②



▲ 비토리학살 생존자인 지명석 씨(당시 20세)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2011)에서 재인용.

② 조선일보 1957년 9월 11일자



▲하늘에서 본 비토섬. 사진 왼쪽에 여덟시 방향으로 길게 뻗은 지형이 학살사건 현장이다.

진상조사

전북 장수의 3대 민의원(무소속)이었던 정준모 전 보건사회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5명의 국회조사단이 서울을 출발한 것은 사건이 터진 뒤 19일이 지난 1957년 9월 16일이었다. 이들은 3일 동안의 조사를 끝내고 서울에 올라와 같은 해 10월 26일 '나환자와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했다.^③ 이 조사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토리 사건에 대한 국회조사단 보고서 주요 내용^④

보고서 명 : 나환자와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

가. 조사내용

영복원의 연혁과 규모: 원장(정봉성, 기독교 장로, 건강인)

환자 281명, 대지 2,080평, 임야 10여 정보, 담 7,000평, 전 9,000평

구호미 265명분(인당 3홉)

1950년부터 비토섬 이주계획

1956년 11월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 임대 방침에 따라 비토섬의 귀속임야 22정보 임차를 위한 수속 시작

1957년 7월 12일 경상남도에 접수하였으나 각하

8월 7일 삼천포 시장, 농업은행 삼천포 지점장, 영복원장이 삼천포 경찰서장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 합법적 행위에 대해 협조의사를 밝힘^⑤

8월 8일 병력자 36명 입도, 9일 퇴거

8월 16일 원장과 총무부장이 서포지사, 삼천포 경찰서에 8월 19일 입도 예고

8월 22일 입도 후 개간 착수

8월 24일 서포지사로부터 원대표 출두 요청, 서포면장실에서 27일까지 퇴거를 약속

8월 27일 현지 경찰이 퇴거 약속 준수를 요구하며 공포 발사. 비토리섬 주민은 굴양식장 기대 무산 우려, 전염 위험 및 토지 상실 우려^⑥

8월 28일 비토리 및 서포면민 100여 명이 저항능력이 없는 환자 68명을 공격, 22명 현장 사망, 2명 행방불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23명, 중상자 중 1명 사망

나. 종합고찰

영복원 원장은 합법적인 임차계약 없이 기존의 점거 개척 관행에 따라 귀속임야의 점거 개간을 사주함. 삼천포 시장 및 삼천포 경찰서장의 협조 언질을 과신함. 영복원 측의 일부 과실 인정. 주민들로 하여금 실력행사만이 해결책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한 현지 당국의 책임 인정.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한센인을 살해한 행위는 극단적 범죄행위임. 현지 경찰의 방조와 무책임, 무능력이 주원인이

③ 조선일보 1957년 9월 4일자

④ 이 보고서에는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 공식 보고서이므로 이 글에서 따로 수정하지는 않았고, 아래에서 각주로 처리했다.

⑤ 보고서에는 협조의사를 밝힌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보고서의 이후 내용에 따르면 경찰서장인 듯 보인다.

⑥ "비토리섬 주민은~"은 섬 주민들이 영복원생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배경에 대한 설명일 뿐, 8월 27일 사건 일지 내용으로는 어색하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므로, 삼천포 서장, 비토지서 주임 외 현지 행정담당자 책임조치 및 주민 84명에 대한 엄정 처벌 필요함.

다. 최종의견

영복원장 의법처벌, 현지 행정책임자(면장 및 지서주임) 조사 후 책임규명, 주동자 엄정처벌, 현지 경찰책임자 처벌과 항구적 대책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

비토리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1958년 1월 28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김종우 외 4명에 징역 3년, 민정호 외 5명에게 2년, 손봉수 외 31명에게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이 언도되었다.^⑦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사법처벌을 받았으나 곧 풀려났다.

사천 비토리 사건 관련 국회조사보고서에는 책임자 처벌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사천 비토리 사건은 무단 점유 후 사후 인정 방식을 택한 당시의 한센인들의 자구 행위와 그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가진 주민들의 집단 행위가 충돌하여 빚어진 비극으로서, 국가 공권력의 방치 하에 무방비 상태의 한센인이 대량 학살되었고, 그 후에도 가해자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재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보건복지부, 2011.7.
- “아름다운 섬 ‘비토’에 숨은 ‘핏빛’ 이야기”, 하병주, 뉴스사천, 2011.12.26.
- “한센병환자들…아직 다 말하지 못한 역사”, 길윤형, 한겨레신문, 2005.2.4.
- “한센인 학살, 경찰이 방관했다”, 길윤형, 한겨레21, 제597호, 2006.2.15.
- “하늘도 눈을 가린 참극-비토리 사건을 증언한다”, 김병련 목사, 1985.

⑦ 조선일보 1958년 1월 31일자

고대 사회의 장애 유아 살해 전통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는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서구인들의 “현대적 삶은 어느 것 하나 그리스인들에게 빚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 사회는 노예제를 통해 유지되었기에 철저하게 계급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자유 시민의 권리는 그리스·로마 혈통을 가진 건강한 남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톱 하면 전쟁을 일으켰다.

게다가 그리스·로마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던 탓에 현실의 안락과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문화 때문에 그리스·로마인들은 세속적 욕망에 충실하고 육체의 비례와 아름다움을 탐닉하고, 거대한 무덤 대신 실존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을 무수히 만들어 자신의 육체를 후대에 남겼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또 ‘비례가 맞지 않은’ 육체를 가진 장애인, 설령 그가 귀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는 신체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합법적으로’ 살해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 아이는 키워봤자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식충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런 전통을 ‘유아 살해(infanticide)’라 부른다.

고대 그리스의 '유아 살해'

2006년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관객몰이를 한 할리우드 영화 <300>은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소년이 태어났을 때, 모든 스파르타인들처럼 검사를 받았다. 작거나 병약하거나 결함이 있었다면 그 아이 역시 폐기되었을 것이다.” 곧이어 카메라는 계곡 앞에서 있는 부모와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는 장애 아기를 비춘다. 곧 폐기될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의 표정은 해맑기만 하다. 번갯불이 비춘 계곡 아래에는 버려진 장애 아기들의 해골들이 즐비하다. 끔찍한 장면이다.



▲영화 <300>의 한 장면. 한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을 아포테타이라고 불리는 구렁에 던지는 모습을 그 옆에서 어머니가 무덤덤하게 지켜보고 있다. 구렁에는 버려진 장애 아기들의 해골이 즐비하다.

이것은 연출자의 상상력으로 묘사한 장면이 아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사회는 장애 유아를 들판에 폐기하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Lycurgus)법은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함 있는 아이’는 폐기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오늘날 아프가 검사(Apgar Test)^①와 유사한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 신체나 정신에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이 있다고 판정되면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타이게토스(Taygetus) 산기슭에 있는 숲속에 내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크(Plutarch, 48년~122년 추정)가 쓴 <리쿠르고스의 삶>의 한 대목을 보자.

“아버지는 자식의 양육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레스케(Lesche)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부족의 원로들은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신생아를 검사하였다. 만일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 아비에게 잘 기르라고 명령하고 9,000개의 땅덩어

^① 신생아의 호흡, 심장 박동, 피부색, 근육의 힘, 신경 반사 등 5가지를 검사하여, 그 아기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검사법은 미국 마취과 전문의 아프가 박사가 개발한 이래 아직도 임상소아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리 중 하나를 할당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가 병약하거나 기형이면 타이게토스 산기슭에 있는 깊은 구렁인 아포테타이(Apothetae)로 보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를 갖추지 못한 인간의 삶은 그 자신이나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위에서 소개한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아포테타이에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누구나 짐작하듯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산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유아 살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플라톤의 저서 <테아이테토스>를 보면,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결함이 있는 아이는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물건(this thing) 속에 들어 있는 결함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런 물건은 양육할 가치가 없는 무정란, 기망일 수 있다. 너는(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지 유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첫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그 아이의 흠결을 보며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플라톤 자신도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위해 허약하거나 불구인 사람은 유기하거나 살해해도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국가의 제도뿐 아니라 이처럼 당대 최고 지식인들조차 유아 살해를 옹호하였다는 것은 이런 전통이 고대 사회에서 널리 성행했다는 증거다.

고대 로마의 유아 살해

고대 그리스에 이어 고대 로마의 유아 살해 전통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영화 한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1992년에 개봉한 영화 <배트맨 리턴즈>를 보면 장애 아기를 물가에 내다버린다는 설정이 나온다. 영화에서, 한 어머니가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를 지하에 흐르는 강물에



▲영화 <배트맨 리턴즈>의 한 장면. 어릴 때 부모의 버림을 받고 지하 강물에서 펭귄에 의해 양육된 '펭귄인간'이 '가족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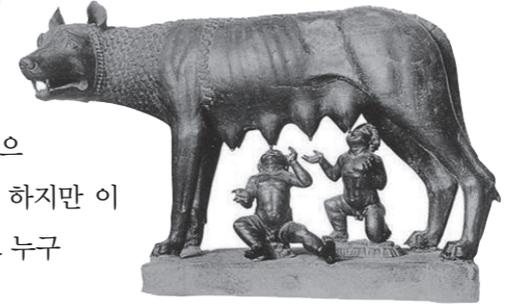
내다버린다. 펭귄 엄마의 젖을 먹고, 펭귄 형제들과 자란 아이는 인간을 증오하는 악당이 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이 사회를 증오하는, 말하자면 광기어린 반사회적 인물이 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어머니가 장애 아기를 강물에 버린다는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고대 로마인들의 유아 살해 전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인들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것처럼 장애 아기를 유기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처럼 장애 아거나 여자 아이를 야산에 버려 아사시키기도 했지만, 로마를 가로지르는 티베르 강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게 더 일반적이었다. 아이를 강물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광주리에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티베르 강에 아이를 버리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는 오랜 전통이었던 것 같다. 비슷한 이야기가 로마 건국 신화에도 나올 정도인데, 관련 대목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대 라틴족의 왕 누미토르의 동생 아물리우스가 반란을 일으켜 형을 국외로 추방하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형의 아들들은 모두 죽이고 딸 레아 실비아는 무녀로 만들어 평생 처녀로 살게 한다. 형의 대를 완전히 끊어 후환을 없애려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신전에 바칠 물을 구하기 위해 숲에 온 실비아의 아름다움에 반한 마르스 신이 그녀를 겁탈한다. 실비아는 처녀의 몸으로 쌍둥이 형제를 낳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물리우스는 진노하여 쌍둥이를 죽이라고 명한다. 하지만 신하는 차마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없어 광주리에 쌍둥이를 담아 티베르 강에 띄워 보낸다. 다행히도 티베르 강이 범람하여 쌍둥이를 담은 광주리는 강기슭에 닿게 된다. 이때 물을 마시러 온 어미 늑대가 배고파 울고 있는 두 형제를 발견했다. 늑대는 광주리를 물고 아이들을 늑대굴로 데려간다. 그날부터 쌍둥이는 늑대 어미의 젖을 먹고, 늑대 형제들과 함께 자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양치기가 강가를 거닐다가 늑대가 키우는 쌍둥이를 발견하고, 몰래 쌍둥이를 굴에서 훔쳐내어 자기 아들로 키운다. 두 형제는 훌륭한 씩씩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훗날 로마를 건국하는데, 그들이 바로 로물루스(Romulus)와 레무스(Remus)다.”

유아 살해 전통은 로마제국 말엽까지 계속되었다. 당시는 기독교 사상이 널리 전파되어 유아 살해가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오랜 전통대로 장애 아기를 비롯하여 원하지 않는 어린 자식들을 유기시켰다. 그 무렵에 활약한 기독교 신학자 테르툴리안(Tertullian, 155년~220년 정도)이 쓴 <이교도인들에게 Ad Nationes>를 보면, 유아 살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유기시켜 동사시키고 아사시키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물에 떠내려 보내 서서히 익사시킨다.” 하지만 이 살인자들의 신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로마 건국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청동상. 로마 건국 신화를 표현한 작품이다.

근대에 되살아난 유아 살해의 망령

고대 그리스·로마의 유아 살해 전통은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사회에서는 법적,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을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종교적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이 전통은 자연도태 개념에 기반한 사회진화론과 만나면서 ‘선별적 인간 양육(selective human breeding)’이라는 사이비 과학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진화론자들은 ‘삶을 향한 투쟁(struggle for life)’,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같은 다윈의 용어를 채택했다. 이런 개념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출산정책’과 직결된다.

유아 살해는 근대국가의 인종위생(racial hygiene)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약한 유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한 고대 사회의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위생주의자들’ 또는 ‘인종인류학자들’은 플루타르크의 <리쿠르고스(Lykourgos)>와 플라톤의 <국가론>(Republic)을 줄기차게 이용했다.

일례로, 독일 조각가 뮐러(C. Muller)의 작품 <리쿠르고스>(1844년)는 스파르타 집정관 리쿠르고스가 신생아를 검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장면은 양육이나 유기냐를 결



▲ 뮐러, <리쿠르고스>(1844년)

정하는, 즉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세기의 전환기 독일에서 스파르타 전통을 확고하게 각인시키는 이 장면은 인종위생 담론을 전파하는 중요한 선전도구로 기능했다.

또 '독일 사회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1834년~1919년)은 특별히 '스파르타식 선별' 개념에 집착했다. 그는 당시 독일 의료계가 유아 선별을 포기하고 '의학적 양육'을 이식한다고 맹비난하고, 스파르타를 '인공적 양육'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악명 높은 그의 책 <삶의 기적 Das Lebenswunder>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스파르타가 건강한 아이를 선별해내기 위해 기형아를 죽인 행위를 우리의 근대 법률이 규정한 것처럼 살인 개념으로 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는 이 같은 죽임이 그 당사자와 사회를 위한 유용한 조치였다고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

헤켈의 '스파르타식 인간 양육'은 사실 이론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빌헬름 샬마이어(Wilhelm Schallmayer, 1857년~1919년) 같은 자들은 그 이론을 실천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이 주장한 '신인류(New Man)'란 사실은 독일제국의 몸-문화를 '스파르타인의 몸'으로 개혁하자는 것이기도 했다. 20세기 초엽 성행한 자연주의운동(naturalist movement)은 '건강한 몸'을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육체 의식을 선전·선동하는 것이었다.

유아 살해 전통, 히틀러를 만나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유아살해 전통이 마침내 히틀러와 만나게 된다. 히틀러가 스파르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 드러낸 것은 1928년이였다. 그해 10월 18일에 한 연설에서 그는 스파르타의 유아 선별 관행에 대해 언급했다.

“스파르타인들은 절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근절하였다. 이것은 참혹한 관점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후손들은 많은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소수 주민을 희생한 대가로 더 편안한 존재양식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히틀러는 <비밀의 책 Zweites Buch>을 썼는데, 이 책의 '출산정책' 챕터에는 스파르타의 유아 살해 전통을 극찬하는 구절이 있다. “[스파르타가] 병들고, 허약하고, 기형인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은 - 즉 이런 아이들을 근절하는 것은 - 인종적으로 순결한 국가가 최초로 수행한 가장 모범적인 인종정책이었다.” 그는 강인한 스파르타인들이 당시 독일의 감상적인 부르주아와 반대로 “그와 같은 현명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히틀러의 수하들도 스파르타에 열광했다. 스파르타 의학에 몰두한 나치정권 선전부 장관 괴벨스는 히틀러의 주치의 칼 브란트(Karl Brandt)를 데리고 직접 스파르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뒤 괴벨스와 브란트는 안락사와 우생학을 신봉하게 되었다고 한다.

히틀러와 그의 수하들의 탐색전이 마침내 끝났다. 그들은 1930년대 후반 중증 장애인들을 집단수용소에 분리한 다음에 독약이나 독가스로 '청소'했는데, 이것을 'Action T4'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희생당한 장애인이 공식적으로는 8만 여명이라 하지만, 학자들은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인 샤피로(J. Shapiro)가 쓴 <동정은 싫다 No Pity>의 한 단락을 읽어보자.

“나치 독일의 의사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신지체인, 정신병자, 간질환자, 만성질환자, 중증 장애인들을 대량학살의 대상으로 골랐다. 그들은 루미날이나 몰핀-스코폴라빈을 치사량까지 주사하여 처음에는 장애 아이들을, 나중에는 성인 장애인들을 살해했다. 일산화탄소 가스실험실에서도 이런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다. 역사학자 갤러퍼(H. G. Gallagher)는 장애인 약 20만 명이 그렇게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



▲ 'Action T4' 선전 포스터. 포스터 한 가운데 붉은 글씨로 “국민여러분들, 당신들의 돈이기도 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나중에 나치 정권은 이 잔인한 프로젝트를 또 다른 집단으로 확산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을 포함한 600만 명에 이르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이다. 나치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학살한 까닭은 그들의 사회 통치 이념이 '우생학(인종개량학)'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나치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안락사였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차우세스쿠 정권의 장애 어린이 학살

나치가 역사의 단죄를 받은 이후에도 장애인 학살은 계속되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피임과 낙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의사들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신체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신고해야만 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장애가 없는 아이들은 국가가 모든 부양을 책임진 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그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된 채 죽어갔다. 차우세스쿠가 그렇게 한 까닭은 히틀러가 그랬듯이 장애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큐멘터리 영화 <차우세스쿠의 아이들>(2004년)을 보면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카메라 불빛이 한 집단수용소의 방안을 비춘다. 그 순간 깜깜한 방안에서 3~6살 정도의 장애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다. 그 순간 내레이션이 흘러 나온다. “그 작은 방 안에는 침대가 3개 있는데, 그런 곳에서 2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 그 방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쥐들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쥐들이 아이들의 생살을 뜯고 있었다.”

물도 전기도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수용소에서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눈만 쾅한 모습이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우슈비츠 수용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제대로 움



▲다큐멘터리 영화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의 한 장면. 장애 어린이들이 난방도 안 되는 수용시설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을 짓고 있다. 1989년의 모습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제대로 움

직일 수조차 없는 아이들은 산 채로 쥐들에게 살점을 뜯겼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9년에 있었던 일이다. 2,500년 전 장애 아이를 야산이나 강물에 내다버린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다.

현대판 유아 살해의 수단, '기형아 검사'

소위 '기형아 검사'(정확한 표현은 '산전 검사'이다)를 통한 장애 태아 낙태는 현대판 유아 살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2017년 신생아 수가 약 36만 명인데, 낙태 건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한해 150~2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 가운데 장애를 이유로 낙태된 수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거의 모든 산모들이 이른바 '기형아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로 비춰볼 때, 상당수의 장애 태아가 낙태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사실 '기형아 검사'는 치료 목적이 아니다. 설령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유전적, 신체적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기형아 검사'를 하는 걸까? 고대 사회 맥락에서 보면 '유아 살해'가 목적이고, 근대 사회 맥락에서 보면 '적자생존' 또는 '선별적 인간 양육'이 목적이 아닐까?

이처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생명을 폐기하는 유아 살해 전통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장애 영아를 살해한 고대적 전략이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장애 태아를 살해하는 현대적 전략으로 바뀐 것뿐이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음습한 계곡이나 차가운 물속에 유기된 생명들이, 지금은 태어나기도 전에 병원 폐기물로 처분된다는 말이다.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목적이 유아 살해/장애 태아 낙태라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의 관념이다. 고대사회든 현대사회든 이런 관념이 강조되는 건 매한가지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고대사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치고, 먹는 게 남아도는 현대사회는 왜 그러는 걸까?

독일 나치의 <T4> 프로그램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자신들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잔혹한 말살 프로그램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39년, 나치는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된 장애인 유아와 아동을 제거하기 위한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른바 “T4 조치(Aktion T4)”였다. 장애를 가진 성인과 노인들로부터 곧바로 대상을 넓혀 진행된 T4 프로그램은, 종교계를 비롯한 대내외 반발에 부딪혀 1941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공식 중단 선언 이후에도 T4 조치는 1945년 나치가 패망할 때까지 은밀하게 계속되어, 2년 간의 공개 시행 과정의 희생자 7만여 명보다 많은 9만여 명이 중지 선언 이후에 희생되었다. 마지막 희생자가 나온 것은 독일이 항복하고도 3주가 지난 1945년 5월 29일이었다.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희생시킨 T4 프로그램은, 전쟁을 일으킨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저지를 때 사용할 방법들을 다듬는 예행 연습이었다.

음모의 시작

1939년 초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나치 당 의장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독일인이자 나치 당의 열혈지지자였던 리하르트 크레취마(Richard Kretschmar)가 보낸 편지였다. 그는 바로 몇 달 전에 태어난 자기 아들 게르하르트(Gerhard)를 합법적으로 안락사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히틀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게르하르트는 사지 실종, 실명, 발작 등 불치의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였다. 크레취마는 히틀러에게 이 “괴물”을 죽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히틀러는 주치의인 칼 브란트(Karl Brandt)를 보내 이 사안을 살펴보도록 했다. 브란트는 아버지의 판단대로 아이가 “바보”이며, 사태가 개선될 희망이 전혀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게르하르트는 1939년 7월 25일에 약물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 그의 사망 증명서에는 허위로 “심장허약”이라는 사망 원인이 적혔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히틀러 일당은 즉시 행동에 돌입해 독일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단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1939년 9월 1일자로 의사 브란트와 당의장 비서실장 필립 보울러(Philipp Bouhler)에게 보낸 비밀서한을 통해, 아돌프 히틀러는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게르하르트가 살해된 지 세 달 만에 “살기에 부적합한” 장애인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우두머리로 앉은 새로운 부서가 설립된 것이다. 그 지휘부 사무실이 베를린 티어가튼 4번가(Tiergartenstrasse 4) 주소지에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 프로그램은 <T4 조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프로그램의 지휘자들은 모든 정신과 기관, 병원 및 가정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조사양식을



▲칼 브란트 의사(출처: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칼 브란트 의사(출처: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내려 보내고 그에 따라 실태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몇 달 이내에 독일 전역의 의사와 조산원에게 서류가 발송되었고, 우생학 연구에 적극적이던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티어가튼 4번가에 근무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직접 환자를 검사하거나 그들의 의료 기록을 읽어 보지도 않고 각급 의료기관에서 올려 보낸 양식만 검토한 다음 해당 환자의 생사 여부를 결정했다.^① 그들은 수많은 장애인들을 “짐덩어리”, “쓸모 없는 밥벌레”라고 비하하면서 “자비로운 처분”을 통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T4 조치를 합리화했다.

사과의 뿌리

제3제국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하룻밤만에 우연히 고안했다고 생각하기에는, T4 조치는 규모도 컸고 상당히 치밀했다. 그렇다면 1939년의 첫 번째 살해 처분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실제로 더 크다. 사실 <T4 조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는 나치 당의 태동 때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1932년 독일에서는 단종법(斷種法)이 제정되어 이들 부적격자를 자율적으로 거세하도록 했다. 이듬해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이 법은 더욱 더 강화되어 1933년 7월 14일 유전 질환 자손예방법으로 공포되었다. 이 법 하에서 유전적 질환을 가진 45세 미만의 여성은 의사들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의사들의 판결에 불순응하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②

나치 지도자들은 과학적 통제를 통해 독일의 유전자 풀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우생학의 복음을 오랫동안 전파해 왔다. <나의 투쟁>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현대적 의료 수단”을 사용하여 “오직 건강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종 위생학”이라는 나치의 개념을 일찌감치 드러낸 바 있다.

1933년 독일의 국가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나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박멸”하는

① 신생아에 대한 보고 양식에는 신체적 결함 또는 기타 관찰된 정신적 결함을 설명하는 섹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식이 제출되면 3명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실제 검사 없이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십자가를 표시한다. 3개 중에 2개의 십자가만 있으면 의료 처치를 돕는다고 속이고 아이를 집에서 데려와 죽일 수 있었다.
 ② 법률 시행의 첫 해에 약 4,000명이 불임화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3,559명이 패소했다. 나치 정권 말까지 200여 개의 유전위생 법원(Erbgesundheitsgerichten)이 만들어졌으며,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40만 명 이상이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다.



▲ 1935년 3월 베를린, 생명의 기적(Das Wunder des Lebens) 대박람회에 나붙은 나치의 우생학 포스터. "그렇게 끝나게 된다!(So würde es enden!) 이 우생학 포스터는 소위 유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성하여,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유전자 풀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출처: 독일연방문서고, 위키미디어 커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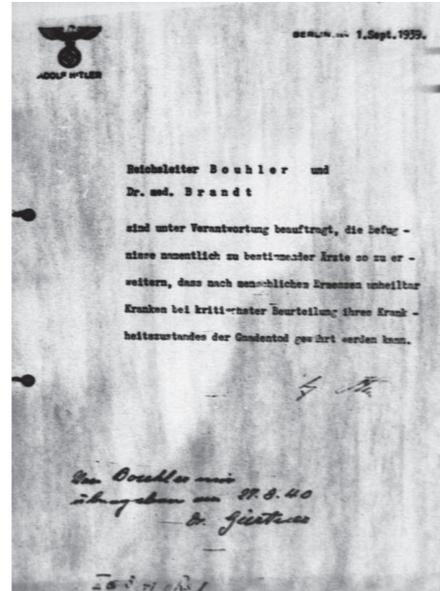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나치 당국은 제국 전역의 정신병원에 명령을 내려, 음식 제공과 치료를 하지 말고 환자를 방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부 장관은 정신지체자 및 다른 “열등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살해할 것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시각장애, 귀먹음, 간질 및 알코올 중독 등 다른 명분과 더불어, “쇠약함”이라는 모호한 진단만으로 박멸 처분이 내려졌다. 히틀러는 1930년대 중반에 이미 부하들에게 단종수술보다 죽이는 것이 더 좋다면, “이런 문제는 전쟁 과정에서 더 원활하고 쉽게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드디어 2차 대전의 막이 올랐고, 그들이 기다린 박멸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T4 조치

1939년 여름까지 독일 전역의 가정과 의료시설에서 수백 명의 유아와 어린이가 격리되

어 전국 6개의 T4 거점 센터 중 하나로 이송되었다.^③ 이곳은 보육원으로 운영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환자를 수용한다고 해도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일단 거기에 오면 아이들은 대개 치사량 수준의 수면제와 모르핀을 투여 받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살인 방법이 늘 그렇게 부드러운 것은 아니었다. 허먼 판뮐러(Hermann Pfannmuller)라는 의사는 아이들을 점차적으로 굶겨 죽이는 기술을 개발했다.^④

초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T4 조치의 적용 범위는 장애가 있는 노약자 및 성인으로 확대되었고 살해 방법은 더 표준화되고 흉측해졌다. T4 요원들은 처음에는 굶김과 독극물 주사로 사람들을 죽였지만 나중에는 더 편한 기술로 독가스 질식사를 선택했다. 의사들은 샤워실로 위장한 방에서 치명적인 독가스를 사용하여 T4의 최종 단계를 집행했다. 프로그램 집행자들은 대상자 가족에게 T4 센터로의 이송 사실을 알렸지만, 방문은 불가능했다. 나중에 친척들은 위로 편지와 함께 의사가 서명한 사망진단서, 유골함을 전달 받았다.



▲ 1939년 9월 1일자로 아돌프 히틀러가 서명한 안락사 프로그램 승인 서한: “제국지도자 필리프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가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의 증상에 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한 뒤에, 특별히 지명한 의사에게 안락사 처치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출처: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 T4 작전 기간 동안 사용된 하르트하임(Hartheim) 시설 (사진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③ 독일의 베른부르크Bernburg,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그라페네크Grafeneck, 하다마르Hadamar, 조넨슈타인Sonnenstein,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하르트하임Hartheim에 T4 센터가 마련되었다. 수송을 담당할 SS 대원들은 의료 절차로 위장하기 위해 흰 가운을 입었다.

④ 1940년 독일 언론이 폴란드 점령지에 있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는 굶주린 한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로 외쳤다. “이 아이는 앞으로 2-3일 더 살 겁니다!” 그 날 방문에 동행했던 한 참석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살찐 손으로 피골이 상진한 흙 짙어가는 아이를 든 채 굶주린 여러 아이들한테 둘러싸여 씩 웃고 있는 이 뚱뚱한 남자의 이미지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항

1940년, T4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살인 센터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 폭로되게 된 것은 희생자의 가족들이 거의 모두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아이들이나 장애인 어른들이 주정부의 “특별서비스”를 받기 위해 격리되었고, 만일 환자가 글을 쓸 수 있다면 몇 통의 편지를 받았을 것이며, 그 다음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홍역을 이겨내지 못해 감염 예방 조치로 화장되었다는 통지를 받지만, 그에 대해 문의도 할 수 없었고 방문도 불가능했다. 이러한 패턴이 6개 시설에서 모두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몇몇 가족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상황을 재구성해 보는 것은 불가피했다. 게다가 그대로 덮어버리기에는 희생자 수가 너무 많았다.

특히 독소전쟁에서 대규모 전상자가 발생한 이래 장애를 입은 참전용사에게도 이러한 T4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참전자 중 몇몇 중증 상이군인에게 안락사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원래 T4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이 군인들을 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대규모 집행 과정에서 고의든 실수든 전상자 출신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퇴역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종교계의 경우 T4 입안 당시부터 반대를 계속해 왔는데, 사람들이 각성하자 몇몇 개신교 목회자들이 더욱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나치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폰, 빌레펠트, 폴 게르하르트 등의 루터교 신학자들이 나서서 항의를 이어갔다. 교회는 전단지까지 배포하여 독일인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도록 했으며 T4 프로그램에 대한 저항을 이끌어냈다.

“유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안락사”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클레멘스 폰 갈렌 주교는 공개 강연을 통해 T4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 연설에 감명받은 순수한 학생들은 백장미단을 만들어 저항 운동을 벌였다.

대량학살의 리허설

저항의 또다른 목소리를 달래기 위한 작은 선물로서 결국 히틀러는 1941년 8월 24일 T4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했다. 대략 7만 명이 희생된 후였다. 사실상 모든 희생자는 독일인 아니면 오스트리아인이었고 그중 절반은 어린이였다.

그러나 1941년에 표면상 T4 조치가 중단된 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단종 및 말살 조치는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더 큰 프로그램 안으로 흡수되면서 은밀하게 계속되었다. 이 은밀한 국면을 포함하면, T4 프로그램 아래 죽임을 당한 장애인은 거의 20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T4 프로그램 공식 희생자 수		
T4센터	기간	희생자 수
그라페네크	1940년 1월 ~ 1940년 12월	9,839
브란덴부르크	1940년 2월 ~ 1940년 10월	9,772
베른부르크	1940년 11월 ~ 1943년 7월	8,601
하르트하임	1940년 5월 ~ 1944년 12월	18,269
조넨슈타인	1940년 6월 ~ 1942년 9월	13,720
하다마르	1941년 1월 ~ 1942년 7월	10,072

출처 : Document 87, P. 232 cit. in Ernst Klee. Dokumente zur "Euthanasie", 1985

장애인에 대한 살인은 홀로코스트의 예행연습이었다. 장애인이 이송된 T4 센터는 전시 포로수용소의 모델이었고, 그들에 대한 조직적 수송은 대량 추방의 전조였다.

1941년 T4 프로그램의 공식 종료는 “지배 민족”에 걸림돌이 되는 “불량민족”을 제거하기 위한 나치 프로그램의 절정인 홀로코스트의 확대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1930년대 후반 냉혈 살인기술자가 된 의사들 중 일부는 죽음의 수용소로 파견되었다. T4 센터는 나중에 수용소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가스실을 개발했으며 희생된 장애인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화덕을 설치했다. 그 뒤를 잇는 죽음의 수용소는 이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수용소는 한 번에 수천 명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몇 시간 만에 태울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T4 프로그램에 사용된 이데올로기, 기술, 장치 및 인력은 홀로코스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홀로코스트에서 악명을 떨쳤던 “목욕과 소독” 계락을 고안한 공로는 T4의 지휘자였던 보울러(Bouhler)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나치 고위층은 이러한 효율적인 살인 방법



▲하다마르 센터에서 살해된 T4 프로그램 희생자들의 공동 묘지. 1945년 4월 15일. (사진: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주목하여 나중에 이것을 훨씬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대량화했던 것이다.

〈악치온 T4〉의 종말

홀로코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악치온 T4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나치 중 몇몇만이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직후 보울러는 체포된 다음 자살했다. 한편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이어진 소위 ‘의사의 재판’은 국제전범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가 브란트 박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나치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판 뮐러 박사는 1951년 440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55년에 석방된 그는 1961년 뮌헨의 자택에서 자유인으로 조용히 숨졌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장애인 말살 조치를 조직적으로 지휘했던 베를린의 티



▲1947년 8월 20일, 뉘른베르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있는 칼 브란트 의사(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어가튼 4번가의 <악치온 T4> 본부 자리에는 현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반인륜적인 말살 조치를 경계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끔찍한 역사 때문에 독일에서는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매우 강하여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또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어서 그렇겠지만 현대 독일어에서는 장애와 정신병을 갖고 욕설을 만드는 것을 터부시한다고 한다.

사실 20세기 초까지는 나치 독일뿐 아니라, 후에 나치에 적대적이던 주변국들에서도 우생학적 분위기가 만연했고, 선천적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거세와 단종수술도 당연하게 여겨진 시대였다. 그러나 나치는 ‘단종’ 정도가 아니라 ‘안락사’에서 ‘집단 학살’까지 자행하여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2차대전 이후 우생학은 인권에 반하는 유사과학으로 판명되어 유럽 사회에서 퇴출되었다.

독일뿐 아니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자행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단종수술, 불임수술이



▲악치온 T4 프로그램 기념비, 베를린 티어가튼스트라세. (사진: 위키피디아)

과연 우생학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신질환 유병률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치 집권 후에 정신분열이나 지적장애의 발생율이 현저히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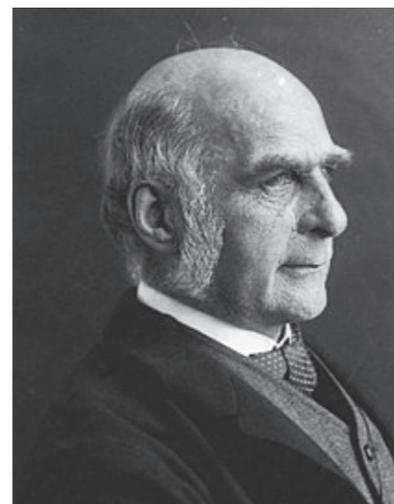
- “Aktion T4, The Nazi Program That Slaughtered 300,000 Disabled People”, Richard Stockton, 2018.5.3.
- “T4 Program”, Michael Berenbaum, <Encyclopaedia Britannica>

우생학과 일본의 「우생보호법」

인위적인 선택을 통해 동식물에서 원하는 형질을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래, 인간의 형질도 인위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원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듯이 인간이라는 생태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진화의 방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에 '우생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된 이 이론은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20세기 초의 국가주의적 정치 환경에서 꽤 인기를 끌었다. 우생 사상에 따라, 1907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세계 최초의 낙태 단종법이 제정된 이후로 1923년까지 비슷한 법들이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제정되었다. 유전학이 새로 밝혀낸 과학적 증거에 의해 우생학의 전제가 흔들리고, 우생 사상을 맹신한 독일 나치당이 저지른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알려지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우생학이 남긴 상처는 크고 깊었다. 우생학이 판치던 시절, 여러나라에서 장애인들은 열등 유전자를 가진 인종으로 간주되어 성·결혼·출산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심지어 단종 수술이라는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다. 일본에서도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단종수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우생학'의 전성 시대

1865년, 영국의 인류학자인 프랜시스 골턴(Sir Francis Galton, 1822~1911)은 《유전적 재능과 특질》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진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우생학적 전망을 제시했다. 당시에는 육종가들이 인위선택을 통해 동식물에서 원하는 형질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골턴은 이런 실험을 사회로 확장하여, 인류의 진화에 해로운 계층을 축소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생학을 창안한 프랜시스 골턴 경 ©National Portrait Gallery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우량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골턴은, 1883년 선택적 출산을 의미하는 "우생학(Eugenics)"이라는 용어를 창안해냈고, 이를 "인종을 개선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골턴은 다양한 가설과 방법론을 활용해 우생학을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학문으로 정착시키려 했다. 우생학이란 용어는 1904년 5월 16일에 있었던 제1회 영국 사회학회에서 <우생학: 정의, 전망, 목적>이란 강연을 통해 널리 대중화되었다. 같은 해 런던대학교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우생학기록사무국(ERO; Eugenics Record Office)이 창설되었고, 1907년에는 국가 우생학을 위한 골턴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다.

골턴의 우생학은 과학적 차원의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 실천을 수반하는 연구였다. 정신적 능력도 유전의 대상이라는 생각, 인종 사이의 우열은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믿음, 생물학적 약자들은 유전과학에 기초하여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가정 등 골턴이 구체화한 원칙들은 우생학 운동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07년 우생학교육협회(EES; Eugenics Education Society)가 런던에 설립된 이래, 우생학은 활발한 대중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나갔다. 골턴의 우생학은 20세기 중후반까지 세계적으로 큰 지지를 얻었고 20세기 초엽을 지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는 1924년 간질환자, 저능아 등에 대해 불임시술을 강제하는 단종법을 제정했다. 1974년에 공식 폐지된 이 법에 의해 불임시술을 당한 버지니아 주민만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의회는 또 앵글로색슨족의 이민은 장려하는 반면, 유대인과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존슨이민법(1924년)도 제정했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도 단종법이 속속 도입됐다.

우생학이 초래한 인류사의 비극은 독일에서 절정을 이뤘다. 나치 정부는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청정정책'의 이름 아래 유대인·집시·동성애자·장애인 등을 박해했다. 나치 정부는 1933년 「유전증근절법」(단종법)을 공포, 악성 유전이 예상되는 병에 대해 우생재판소가 단종 수술을 하도록 허용했다. 이 법으로 약 40만 명이 단종 수술을 강요당했고, 10만 명은 안락사했다. 2년 뒤인 1935년에는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 차별하는 「뉘른베르크법」^①을 제정하면서 유대인 말살정책인 '홀로코스트'의 길을 열었다.

「우생 보호법」 아래 행해진 강제 불임 수술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모델로 1940년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을 만들었다. 이 법은 “국민소질의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강조하며 제정된 것으로, “바라지 않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불임 수술을 인정했다. 이른바 '우생사상' 아래 당시 유전되는 것으로 여겨진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 전에 이 법에 따라 실행된 수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했다. 이런 생각은 전후 「우생보호법」으로 계승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에 성립된 일본의 「우생보호법」은 유전 질환자나 지적 장애인, 나환자들에 대한 불임수술을 허용했다. 이 법은 전쟁 전의 「국민우생법」과 마찬가지로 우생학의 색채가 강한 법률이었다. 패전을 극복하고 국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인구 자질 향상'을 목표로 내건 당시 후생성은 “인구 구성에서 결함자의 비율을 줄이고 우수자의 비율을 증가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국민의 종합적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요구”라는 확고한

①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법이다.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약칭 나치당) 정권 하에서 제정된 2개의 법률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률」(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과 「국가시민법」(Reichsbürgergesetz)의 총칭이다. 이 법들이 '뉘른베르크법'이라고 총칭된 것은 제정 당시 뉘른베르크에서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으며, 그곳에서 특별 의회를 소집하여 제정한 법률이었기 때문이다.
 ② 본 조문의 "생식선을 제거하지 않고"에 대한 해석으로, 자궁은 생식선이 아니기 때문에 적출해도 좋다고 판단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연수의 수련 차원에서 자궁 적출술이 널리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제정 당시 「우생보호법」의 목적 조항에는 “우생(優生)상의 견지에서 부실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모성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우생 수술 및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 법에서 우생 수술이란 “생식선을 제거하지 않고^② 생식을 불능하게 하는 수술로서 명령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생물학적으로 생식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실상의 '단종(斷種) 수술'이었다. 단종 수술의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설치한 심사회가 수술 여부를 결정했다. 심지어 수술을 시행할 때 신체의 구속, 마취의 사용, 속임수 등도 인정했다. 또한 수술을 받은 사람은 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불임 수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 법률에 따라 임신부의 가족이나 후견인이 중앙우생심사회, 지방우생심사회에 낙태 수술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방사선 조사 조치도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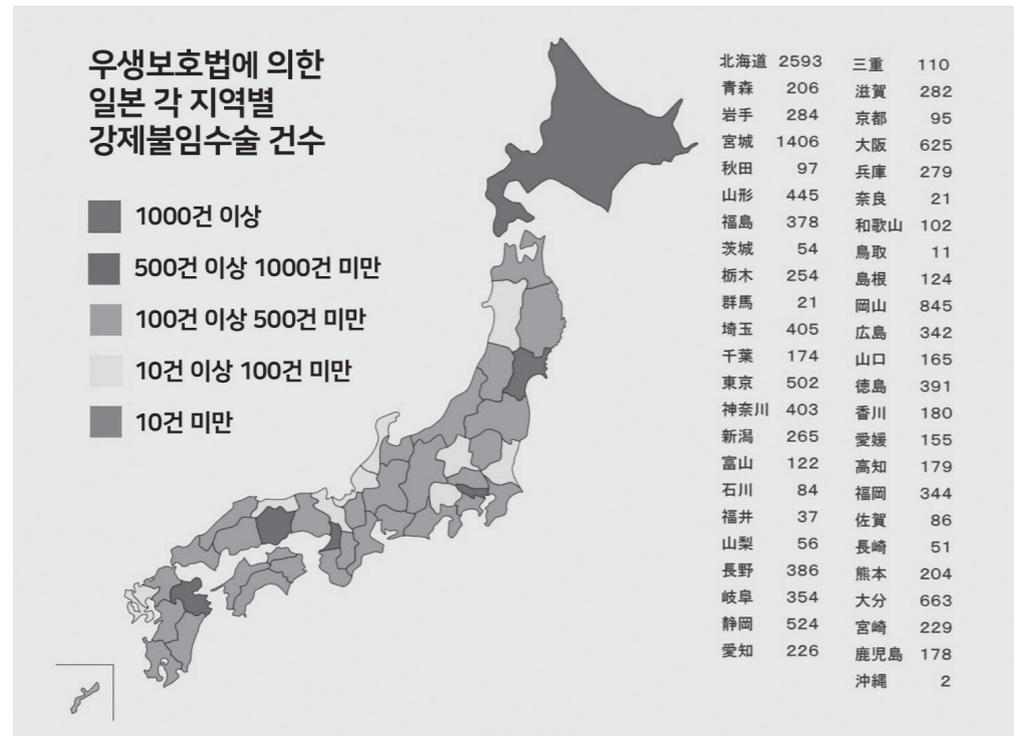
'우생 사상'에 대한 재평가와 차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생보호법」은 1996년에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국가의 사죄나 구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2018년 1월 사태는 변했다. 구 법에 의해 단종 수술을 받은 미야기(宮城) 현의 60대 여성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래, 사태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국의 지자체 등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속속 발굴되고 문혀 온 사실이 조금씩 밝혀졌다.

일본 우생보호법 역사

- 1948년 「우생보호법」 만장일치로 통과.
- 1950년 일부 개정유전질환뿐만 아니라 '문둥병'이나 '유전 이외의 정신병, 정신박약' 등으로 불임 수술 대상 확대, 본인 동의 없이 우생 수술 실시.
- 1972년 개혁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폐안1. 모체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고, "산모의 정신 또는 신체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심한 정신 또는 신체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태아의 낙태를 합법화한다.3. 고령 출산을 피하기 위해 우생 보호 상담소의 업무에 첫 출산 시기의 지도를 추가한다.
- 1974년 1972년 개혁안에서 장애인 단체가 반대하는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중의원 통과. 그러나 참의원에서 심의 미완료로 결국 폐안.
- 1996년 「우생보호법」을 「모체보호법」으로 변경.우생학 사상에 따라 규정된 강제 단종 등의 조문이 삭제되고 "우생 수술"이라는 문구도 "불임 수술"로 바뀜.

뒤늦은 관심과 실태 조사

구 후생성의 <위생연보>와 마이니치(毎日)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기간인 1948년부터 1996년 사이에 모체보호 목적을 포함해 실시된 불임 수술은 총 84만 5,000건에 달했다. 그 중에 동의 없이 단종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기간 중에 전국에서 1만 6475명에 달해서, 기록에 남아 있는 최다 건수는 홋카이도(北海道)의 2,593명이고, 미야기(宮城) 현 1406명, 오카야마(岡山) 현 845명, 오이타(大分) 현 6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1948~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에 의한 일본 각 지역별 강제불임 수술 건수참고 : 마이니치 신문, 이바라기(茨城)현의회 의원 이테요시히로(井手よしひろ) 블로그

대부분의 우생 수술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거의 70%는 여성에 대한 불임 수술이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수술도 적지 않았다. NHK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야기(宮城) 현에서 1963~1981년 사이에 수술 기록이 남아 있는 남녀 8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미성년자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중 9살 여자 아이와 10살 남자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임신 가능성이 낮은 연령의 아이들에게까지 수술을 강요한 실태가 드러났다.



▲9살 여자 아이에게도 강제 불임수술이 행해졌다는 사실이 미야기 현의 기록으로 밝혀졌다. (사진: 마이니치 신문, 2018년 1월 30일자)

일본 전역에서 벌어진 무리한 단종 수술

홋카이도(北海道) 도청은 수술 여부를 심사하는 '우생보호심사회'에서 대상자에게 보낸 통지서와 진단서, 수술 비용 지불 증빙서 등 6천 점 이상의 자료를 재조사했다. 그 결과 1962~1973년도 심사위원회에 신청한 1,210명 중 수술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것이 1,129명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을 시행했다.③ 심사 결과가 불분명한 것이 79명이고 수술이 '부적당'하다고 거절된 것은 두 사람뿐이었다.

③ 성별로 보면 남성이 233명, 여성이 896명이다. 연령대는 20대 428명, 30대 464명으로 가임기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남성 28명, 여성 144명이나 되었다. 최연소는 남성이 14세, 여성 11세였다.



▲MBS 「보도특집 구 우생보호법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캡처 화면©도쿄신문(2018년 4월 7일)

강제수술 건수 2위의 미야기(宮城) 현 의회의 자료를 보면, 1962년 10월 4일 정례 의회에서 구 사회당의 현의회 의원이 일반질문을 통해 「우생보호법」에 의거한 수술 건수를 늘리도록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의

원은 “민족 소질의 열악화 방지의 입장에서 보거나 우생보호법의 입법 취지에서 생각해 보아도” 우생 수술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 내에 우생 수술 대상자가 2만 4천 명 내지 3만 6천 명 정도 있지만, 아타고(愛宕)진료소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은 연간 70명”이라고 지적하고 “50년 걸려도 (대상자) 10 분의 1밖에 하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장애인이) 늘 어날 뿐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답변 당시 현 위생부장은 “앞으로 우생 문제에 중점을 두고 병원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임무를 다하겠다”면서 단종 수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 의원의 요청 후, 실제로 아타고 진료소에서 단종 수술이 집중 실시되어, 이듬해에 114명으로 급증했고 1965년에는 최다 129명에 달했다.^④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육아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근거로 심한 상황도 적혀 있었다. 아사히 신문이 정보 공개 청구 등으로 입수한 문서에도, 돗토리(鳥取) 현의 경우처럼 “유전 근거가 빈약하다” 해놓고도 유전 질환을 이유로 수술을 인정한 사례나 후쿠오카(福岡) 현의 경우처럼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술 여부를 결정한 사례 등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다.

‘우생보호법’은 과거의 것인가

아마도 1970년대까지 강제 불임 수술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합법적인 수술로 그다지 죄

④ 출처 :미야기(宮城)현 의회의원 이데요시히로(井手よしひろ) 공식 홈페이지

책감 등은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당시는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임신을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사회적 체면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여겨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본인 동의 없이도 수술을 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뇌성마비^⑤와 같이 전혀 유전 질환이 아닌 정상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생보호법」을 확대 적용하여 강제로 단종 수술을 실시했다.

왜 우생 보호법이 필요했는지, 생명윤리학을 전공하고 「우생보호법」에 관해 연구해 온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의 마츠바라 요코(松原洋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20세기 우생학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출산을 못하게 하는 단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0년대 정도까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우생 수술도 당연한 듯 행해졌던 것입니다. 전후 일본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우생보호법이 남아 있는 것은 패전에 의해 일본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도 모르는 어린이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없는 것이 좋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도 태아 진단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태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역시 결과에 따라 낙태를 생각하는 편이 비교적 많습니다.”

요코 교수에 따르면 유전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문제는 그 이전에 원래 ‘열등한 자’, ‘우월한 자’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편견 위에서 구 위생보호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당시 현역에서 활동했던 80세 이상의 의사와 이야기를 해 보면, 우생 사상에 관한 인식 차이를 느끼게 된다. 당시 우생 수술을 직접 집도했던 경험이 있는 도쿄(東京) 도의 산부인과 의사, 호리구치 사다오(堀口貞夫, 84) 씨는, “오늘날의 의학 관점에서 보면 9살 소녀들에게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지만, “당시는 법률에 따라 수술을 할

⑤ 뇌성마비(CP; Cerebral Palsy)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뇌성마비는 발달과정에 있는 뇌에 일어난 손상으로 인하여 근육 조절 능력이나, 보행 및 자세유지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 손상은 출생 전후나, 출생 중에 주로 발생하지만 소아기 때도 생길 수 있다. 뇌의 병변은 비진행성이며 진단을 내릴 때에는 이미 활성화 병변이 없다. 안면근육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가 흔들리며 경직되는 모습, 혹은 불안정한 발성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무심결에 뇌성마비인들을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어린이가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편견은 모든 뇌성마비인들이 낮은 지능을 대할 때마다 끊임없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고통이다. 뇌성마비는 운동 및 반응 장애와 관련이 될 뿐, 지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드물게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이 낮으리라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설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해야 할 이유란 없다. (출처: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한다. ⑥

기억을 위한 투쟁

1980년대에 들어서 강제 불임 수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은 「우생보호법」이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된 이래, 피해자들의 증언과 폭로가 있고 나서부터다. 1996년의 법 개정으로 우생 사상에 뿌리를 둔 강제 수술 조항이 폐지된 후 장애인 단체나 피해자는 구 법 시행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가 진상을 밝히고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 지금도 우생학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리츠메이칸 대학의 마츠바라 요코(松原洋子) 교수



▲ 2018년 1월 30일 우생보호법 강제불임 수술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해 센다이 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원고단들 (사진: 마이니치 신문 칸 신노스케 喜屋武 真之介)

년 6월 NHK의 취재에 답하면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당시 불임 수술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면서, “과거 우생보호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반하는 불법 우생 수술이 행해졌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하므로, 이런 가운데 배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⑥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2018년 1월 30일자

2016년 3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회원국의 여성 차별의 현상과 차별 해소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에 권고안을 내놓았다.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로 행해진 불임 수술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6

이런 가운데, 2018년 1월, 미야기 현의 60대 여성이 국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6월에도 홋카이도의 한 여성(75)과 구마모토 현의 한 남성(73)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홋카이도의 여성은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당했다고 청구 사유에 처음으로 추가했다. 또한 남편(81)도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한 것도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 여성이 결혼 후 1981년에 임신을 했지만 친척의 설득에 남편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과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54년만의 증언

2018년 3월, 미야기(宮城) 현 센다이(仙台) 시에 사는 이즈카 준코(飯塚淳子, 가명 70) 씨는 한 방송에서, 16살 때 가벼운 지적 장애를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50여 년 동안, 내내 고민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에 묻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난 일이지만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이즈카 씨는 14살 때 민생위원에 이끌려 아동상담소에서 지능검사를 받았다. 판정은 가벼운 지적장애. 그 후 장애인시설에 입소했다. 이즈카 씨가 더부살이로 가사 도우미를 하던

구 우생보호법을 둘러싼 경과

- 1948년 ▶ “불량한 자손의 출생방지”를 내건 구 우생보호법 시행
- 1996년 ▶ 우생사상에 기반한 조문을 삭제하고 모체보호법으로 개정
- 2015년 ▶ 미야기 현의 한 여성이 구 법에 의해 불임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 신청
- 2016년 ▶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법적 구제 조치를 일본 정부에 권고
- 2017년 ▶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
- 2018년 ▶ 미야기 현에서 불임수술 자료를 열람한 또 다른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구 우생보호법을 둘러싼 사건 경과 ©도쿄신문(2018년 1월 26일자)

1963년, 쇼쿠오야(職親: 고아나 장애인의 양부모가 되어 돌보며 생활 지도를 하는 사람)에 의해 현 병원에 끌려가 나팔관을 묶는 불임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나이 열여섯 살 때였다.

“그날 수술이 정해졌는지 어땠는지는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
에… 그 다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마취된 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냥 마취에서
깨어나서 수도가 있길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려고 했더니 ‘물 마시면 안 돼요’
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기억이 나.”



▲이즈카 씨의 불임 수술을 실시했던 현립 진료소(사진: NHK 하트넷 TV 2018년 3월 30일 캡처)

퇴원 후 집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우생 수술(단종 수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의사와 상담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 결혼도 못하고…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린다 해도 원래대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실 이즈카 씨의 수술은 아버지가 동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했던 거였다. 우생 보호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썼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한 채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우생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 때부터 이즈카 씨는 왜 자신이 불임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싶었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일본변호사연합회를 통해 인권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즈카 씨는 2016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의 모임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많으니까 단념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해 봐야지요.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고 싶어요.”

불임 수술을 강요 당하고 그 분노를 세상에 호소한 여성이 히로시마(廣島)에도 있었다. 2013년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사키 치즈코(佐々木千津子) 여사다. 머리를 핑크로 염색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며 뇌성마비 장애인의 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 분방하게 살아가던 그녀의 모습은 “열등한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우생 사상에 대한 반론 그 자체였다.



▲사사키 치즈코(佐々木千津子)여사-시모노보 슈코(下之坊 修子)감독 2010년 작품 「ここにおるんじゃけえ」에서 © 비디오아트

번식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자 권리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흘린 우생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쇠퇴해 갔다.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나쁜’ 유전자가 모든 부적절한 형질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점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전학 분야의 추가 연구를 통해 유전 형질은 단일한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유기체의 성장에는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갔다. 게다가 1930년대의 대공황은 생물학적 차이나 계급적 차별에 대한 수용보다 사회 환경이나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우생학이 사회로부터 퇴출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나치가 저지른 잔혹한 홀로코스트 때문이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은 대중은 물론 우생학 지지자들에게도 공포스런 경험이었다. 이제 인간을 유전적 차이에 따라 서열화하려는 시도는 거부되었고, 유

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생학이 세계 각국의 현대사에 남긴 상처는 매우 컸다.

인간 생태학에 따르면 생활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자손을 남기는 본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살아가는 데 전력을 다하느라 자기 삶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자손을 남기고 싶은 본능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⑦ 옛날부터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도 생물학적인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 수술은 어쩌면 강력한 생존 의지와 생명의 원리를 거스르는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껏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한 일이 없다. 모든 생명체에게 성장과 번식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본능이자 권리이다. 장애를 열등인자로 취급하고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생명체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단종의 역사는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우생’이라는 헛된 관념에 사로잡혀 힘없는 국민의 기본 생명권을 함부로 빼앗았던 당사자로서 국가는 과거에 저질러진 참극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어리석은 편견과 잔혹한 폭력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는 일이다.

참고자료

- “報道特集, 旧優生保護法・北海道で何が”, MBS, 2018.4.7.
- “強制不妊手術の真実 54年目の証言”, NHK, 2018.3.30.
- “シリーズ 障害のある女性 第2回 本当は産みたかったー強制不妊手術・54年目の証言ー”, ハートネットTV, 2016.7.6.
- “優生保護法による強制的不妊手術の実態”, 赤岩 明, 〈現役産科医の視点〉 Blog, 2016.4.5.
- “国連女性差別撤廃委 障害理由に不妊手術, 政府に補償勧告”, 毎日新聞, 2016.3.12.

⑦ 아카이와 아키라(赤岩 明),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 불임수술의 실태(優生保護法による強制的不妊手術の実態)”, 〈현역 산부인과 의사의 관점(現役産科医の視点)〉 블로그, 2016년 4월 5일.

격리의 시대, 광인옥(Madhouse)과 보호소(Asylum)

16세기 영국 사회는 부유한 상인들을 주축으로 젠트리(gentry)라는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던 시대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전까지 종교의 영역에 머물렀던 장애인 문제도 점차 법적 보호의 대상이나 자선의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17세기 후반의 대형병원 설립과 자선 운동은 그 이후 장애인 격리 시설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18세기 영국 사회에는 ‘광인옥(Madhouse)’이라고 불린 독특한 사설 정신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사람의 광기는 영혼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성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도덕적 처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광인옥은 대부분 가족적인 분위기와 정갈한 환경을 갖춘 소규모 치료시설이었다.

19세기는 ‘보호소(Asylum)’의 시대라고 할 만큼 새로운 격리시설이 급격히 팽창했다. 그때까지 장애인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가 돌봐야 할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런데 새로운 개혁가들은 ‘보호소’야말로 ‘미치광이들’이 치료될 수 있고 ‘바보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주장했다. 1834년의 빈민법 개정 이후에 장애를 가진 사람 중 상당수는 지역 사회를 떠나 보호소와 작업장으로 옮겨 갔다. 바야흐로 격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16세기, 영국 장애인들의 뜻밖의 시련

1534년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헨리 8세는 곧바로 수도원 해산을 명령했다. 전국에서 카톨릭 교회 시설이 파괴되고 수도승과 수녀가 쫓겨났다. 이 불뚱은 뜻밖에도 종교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병자들과 장애인에게로 튀었다. 종교 시설의 해체와 함께 이들을 위한 치료 체계도 붕괴되었고, 그 여파로 많은 장애인들이 부랑 생활로 내몰려야 했다.



▲ 헨리 8세의 수도원 해산 과정에서 파괴된 요크셔의 리보(Rievaulx) 수도원 © Historic England



▲ 런던 베들렘(Bedlam) 병원 © Wikimedia Commons

하면서, 런던에 있는 베들렘 병원도 장악했다. 이 병원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들을 위한 치료시설로서 영국에서 유일한 곳이었다. 1547년에 이 병원의 관리는 런던자치회(the Corporation of London)로 이관되었다. 그 후로 이 병원은 공공시설이 되었다.

장애인의 삶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빈민법은 “덜컹한 부랑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다. 그들에게는 채찍질을 하거나 낙인을 찍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들’은 다르게 보았는데, 그 중에는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①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점차로 시민의 의무가 되었다. 돈 많은 후원자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에 자금을 냈다. 런던에서는 새로운 병원이 건립되었고 몇몇 오래된 병원은 재건축되었다.

헨리 8세는 종교 질서를 해체

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지적 장애자나 바보, 광인, 맹인, 절름발이 등은 일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들은 감독관들이 필요한 구조조치를 해야 하며 질병과 수요에 따라...수당을 받아야한다.” (Michael Dalton, <The Country Justice>,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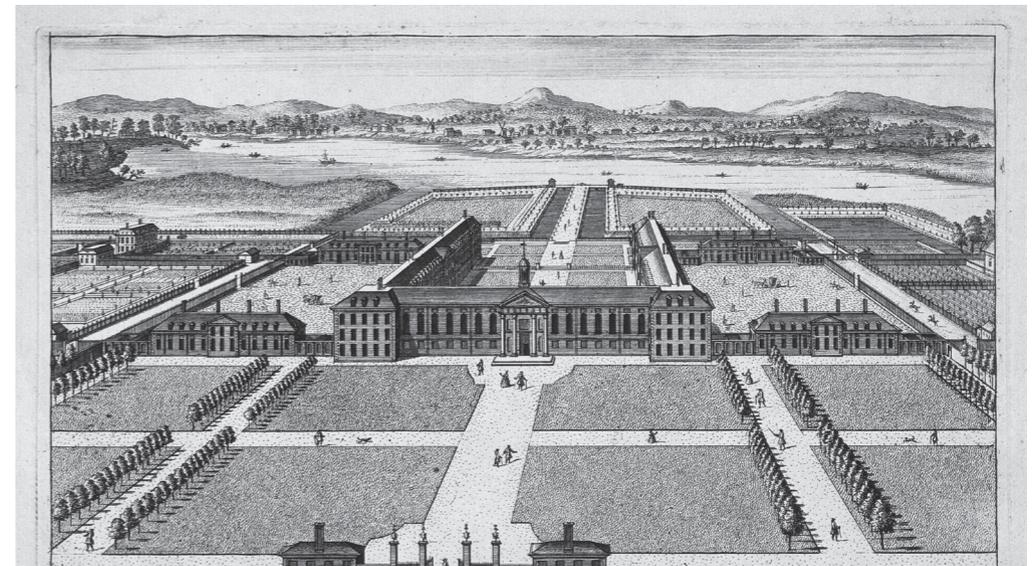
② 1570년에 70세가 된 노리치(Norwich)의 어떤 맹인 제빵사는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

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 종교·심리·점성술 또는 전통 요법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장애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일을 하기도 했다.^② 정신병자의 돌봄은 본질적으로 가정의 문제였고,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지역 사회와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일은 드물었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도

17세기 중반부터 1832년 대개혁법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장애에 관한 영국인의 개념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은 정신장애가 ‘악마에게 영혼을 사로잡힌 상태’로 여겨지지 않았다. 장애인 ‘이성의 손상’이므로 ‘올바른 치료를 통해 복구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불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선을 베풀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17세기 후반에 병원은 중세 시대의 소규모 종교 보호시설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다. 특히 수도 런던에서 그랬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중심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런던은 1666년 대화재 이후 국제도시로서 부와 명성을 과시할 수 있는 거대한 건축계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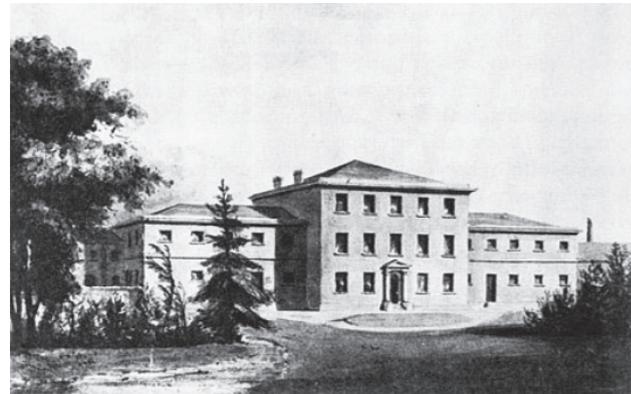
▲ 첼시 왕립병원. B. Cole의 동판화로 추정, 1720 © Wikimedia Commons, Wellcome Images

수립했다. 그 계획 속에는 웅장하고 거대한 새 병원의 신축도 포함되었는데, 왕립 베들렘 정신병원은 그 혜택을 받게 된 첫 번째 병원이었다.

베들렘의 재건이 끝나자, 찰스 2세는 프랑스의 루이 14세(Louis XIV)가 지은 파리의 앙발리드(Hotel des Invalides) 군인병원을 따라잡기 위해 1691년에 장애인 및 원로 군인을 위한 런던 첼시병원을 완공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1694년 장애인 및 해군 참전 노병을 위한 왕립 그리니치 병원이 지어졌고, 한 세기에 걸쳐 해군병원 건축이 이어졌다.^③

이러한 과시적인 건축에 대한 반작용으로 활발한 자선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의도는 웅장한 건물을 만드는 대신 병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무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위생적인 시설 내에서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가 심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712년에, 정신병자를 위한 자선 베델 병원이 노르위치에 지어졌다.^④ 맨체스터(1766), 뉴캐슬(1767), 요크(1777), 리버풀(1792)에도 약 100명 규모의 소규모 자선 병원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요크는 부패와 학대로 유명해졌다.

1796년 요크의 퀘이커 교도들은 그들만의 검소한 체제인 요크 피정소(the York Retreat)를 새로 창립하였다. ‘의학’ 치료는 ‘도덕’ 치료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이 말은, 가족적 분위기에서 나오는 친절, 이성적 대우와 인도주의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 피정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소인 요크 피정소, 1796~1914. ©Historic England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살았다.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유명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 계층에 장애인들이 있었

③ 1762년에 햄프셔(Hampshire)의 해슬라(Haslar)와 데본의 플리머스(Plymouth), 1795년에 켄트의 딜(Deal), 1811년에는 노퍽의 그레이트 야머스(Great Yarmouth)에 각각 병원이 지어졌다.

④ 의사 윌리엄 배티(William Battie, 1703-1776)가 운영한 베델 병원은 자유로운 활동, 신선한 공기, 좋은 음식을 내세워 베들렘 식 체제를 거부했다.

다. 18세기 말에 와서도 약 9백만 명 정도의 장애인 중 1만 명 이하의 장애인들만 시설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야말로 ‘색다른’ 사람들에게 ‘딱 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새로운 전문기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야흐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격리가 시작된 것이다.

광인옥(狂人屋, Madhouse)의 시대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광인옥(Madhouse)’으로 불린 사립 정신병원의 등장이다. 원래 ‘광인옥’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고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평범한 집들이었다. 19세기 말이 되면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이런 사립 주거시설이 전국에 걸쳐 약 45개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부유한 사람들을 봉양했다. 교구에서 돈을 대서 가난한 광인을 수용했던 규모가 큰 광인옥도 몇 개 있었지만,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다른 환자들의 구역은 엄격히 분리되었으며 그 삶의 질도 크게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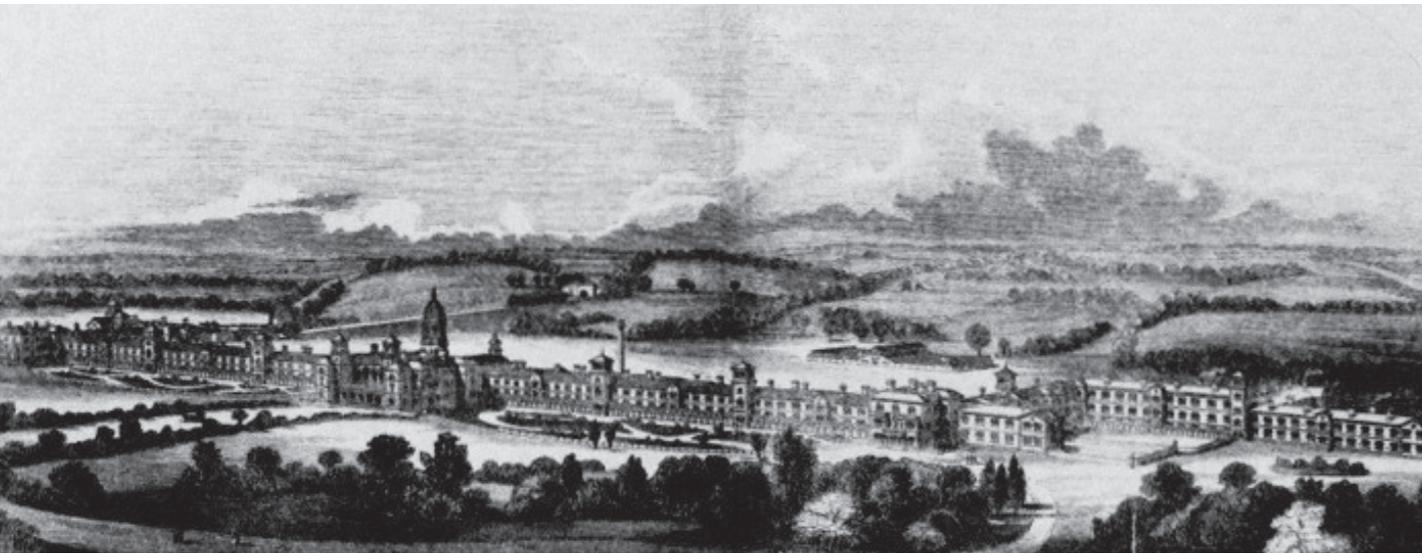


▲악명높았던 브리스톨의 사립 광인옥 브리스링턴 하우스의 전경 © Historic England Archive

광인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광인의사(mad doctors)’로 불렸다. 그들은 배경이 다양한 그룹이었고 반드시 의료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직업적 지위가 거의 없었으며 목사, 돌팔이 의사, 세습 가문 등도 있었다. 배우자나 가족들의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정신병자가 아닌 몇몇 사람들이 불법 구금되는 일이 잦아지자, 1774년부터 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광인옥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국가가 경영하는 카운티 보호소가 성장하면서 사립 광인옥은 더욱 쇠퇴하였다.

19세기, 보호소(asylums)로 떠난 사람들

19세기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시설이 말 그대로 '뽕 터졌던' 시대다. 산업혁명은 영국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고 도시, 공장, 철도 및 제분소가 오래된 들판과 마을을 빠르게 대체했다. 이런 풍경에 더하여 크고 작은 도시의 외곽에는, 새로운 빈민 정신질환자 보호소의 높은 담장과 굴뚝이 확연히 눈에 띄기 시작했다.^⑤



▲미들섹스에 있었던 콜니 해치 보호소(Colney Hatch Lunatic Asylum) 1851년에 문을 열었다.라잉(Laing)의 목판화 © the Wellcome Trustees

9개의 민간 시설에서 시작된 보호소(asylum) 설립 운동은 19세기 영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전례없이 많은 수가 지역 사회를 떠나 이런 특수시설로 옮겨갔다.

1808년부터 의회는 '가난한 광인'을 위한 공공 보호소를 승인하여, 20개의 시설이 만들어졌다. 1845년부터는 모든 카운티마다 보호소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⑤ 1892년 <빌더 매거진(The Builder Magazine)>은 '지방의 주를 관통하는 철도의 주요 노선에서 여행자들은 분명히, 비교적 외딴 곳에 있는 대단지 건물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현대적인 분위기... 그 높은 굴뚝과... 그 육중한 물탑으로 보아 외딴 시골보다는 분주한 도시에 속할 듯한 풍경이다.' 이것이 바로 보호소였다.

⑥ 보호소의 주요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다. '복합시설형 - 잡다한 구조가 뒤섞여 있는 유형(서퍽 카운티 보호소); 복도형-병동이 복도를 따라 최대 길이 약 400미터 이어진 유형(미들섹스의 콜니 해치 보호소); 분관형(Pavillion type)- 각각 150~200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여자와 남자 병동으로 이루어진 유형(허트포드셔의 리브스덴 병원).

'정신병 위원회(Lunacy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19세기 말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무려 120개의 새로운 보호소가 있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다.^⑥

보호소는 멀리서 바라보면 감탄할 만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혀 살고 싶어하지 않았던 곳이다. 커다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보통 넓은 공터 한 가운데에 무시무시한 급수탑과 높은 예배당이 보였다. 탑 주변에는 부엌, 세탁실, 작업장, 레크리에이션 홀 및 관리 구역이 있었다. 병동은 성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각 병동은 최대 100명까지 수용했다.

탈출을 막기 위한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보호소는 자급자족의 세계였다. 경내에는 농장, 과수원, 작업장, 잔디 볼링장 및 크리켓 경기장이 있었다. 병동에서 갈라져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바람 쐬는 뜰'도 있었다. 일부 보호소는 심지어 전용 철도역을 가진 곳도 있었다.^⑦ 자체 소방차를 보유한 소방대가 있었고, 예외 없이 공동묘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가정 안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게으름을 조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으름뱅이들과 얻어먹는 자들'을 뿌리뽑기 위한 새로운 작업장도 많이 지어졌다. 1834년 빈민법 제정 이후 대략 20마일마다 하나씩 약 350개의 암울한 새 작업장이 지어졌다. 그곳은 처음부터 엄격한 환경과 혹독한 노동체제를 가진 비참한 장소로 의도된 곳이었다. 그러나 사지 멀쩡한 가난뱅이들은 요리조리 그물을 빠져나가고,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만 그 안으로 들어갔다.

보호소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신병자'로 공인된 사람들의 수도 급증했다. 들어오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졌고, 반면에 시설을 떠나는 사람은 점점 적어졌다. 1806년 보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115명이었는데, 1900년에는 평균 1,000명을 넘어섰다. 보호소마다 새로운 병동과 새로운 층을 계속 추가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유니온 작업장 내 세탁소 건조실, 노포크 그레센홀 리첼로 © English Heritage

⑦ 서리(Surrey) 주의 '입섬 단지(Epsom cluster)'로 알려진 5곳의 보호소에는 자체의 경전철과 차량이 있었다.

또는 세 번째 공립 보호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런던에서만 11번째 보호소가 지어졌다.

사회는 서서히 낙관론을 잃어갔다. 특수시설에서 일하는 새로운 직업인 '별종 의사'(후에 '정신과의사')들도 처음에는 보호소를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 그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해 '치료불가능'이라고 결론내렸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절대로 시설을 떠날 수 없었고, 보호소는 더 이상 치료시설이 아니라 단순한 구금 시설이 되었다.^⑥

주류 사회 집단은 자기들과 다른 '특수한' 사람들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특수시설'을 지어 장애인들을 본격적으로 격리하고 고립시켰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들이 예전처럼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조용한 침묵이 아니라 한 세기에 걸친 끈질긴 저항과 용감한 투쟁을 동반해야만 했다.

참고자료

- "A History of Disability: from 1050 to the Present Day", Historic England. (<https://historicengland.org.uk>)
- "A Disability History Timeline", Mersey Care NHS Foundation Trust

⑥ 1866년 조지 패깃(George Paget, 1809-1892)이라는 의사는 보호소를 가리켜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문명의 가장 축복 받은 실현체"라고 환호했다. 그리고 130년 후, 한 역사학자는 보호소를 두고 "원치 않는 자들을 수집해 놓은 박물관"이라고 말했다. (Marlene Ann Arieno, 〈Victorian Lunatics: A Social Epidemiology of Mental Illness in Mid-Nineteenth-Century England〉,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9)

언론은 장애를 어떻게 왜곡하나?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현실이라고 정의하면, 그들의 논리적 귀결에 따라 그 상태가 현실이 된다"고 했다. 이를 장애에 적용하면, 장애를 비극으로 보면 그에 따라 장애인은 비극적 사건이나 환경의 희생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취급은 일상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에서도 변형되어 나타난다. 그 대신 장애를 사회적 억압으로 정의하면 장애인은 개인적 희생자라기보다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는 이 사회의 집단적 희생자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럴 경우 개인적 보상보다 억압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조정될 것이다.

- 마이크 올리버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데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세상을 파악하는 인식방식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까지 제시할 때도 있다. 그래서 언론이 장애인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묘사하면 그 독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면 우리 사회 장애인은 실제로 그런 존재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

우리 언론을 살펴보면, 과거처럼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들 - 가령 불구자, 병신, 폐질자, 정신박약자, 백치 - 은 거의 사라지고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려는 기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바라보는 '의료모형'에 근거하여 장애 쟁점을 다루려는 경향은 여전하다. 즉 장애를 치료, 재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의학의 시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장애 문제를 사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닌 주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장애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여 보도할 때가 왕왕 있다. 장애인 사회는 언론이 장애 쟁점을 다룰 때 애써 긍정적으로 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보도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럼 우리 언론이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을 초인 또는 감동의 원천으로 과장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박씨는 한자공부를 하는 (시각장애인) 이씨에게서 놀라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발견했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씨에게 자신의 안구기증을 제의했다.

〈문화일보〉 2011. 4. 20. 35면

경북여고와 대구예담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졸업논문을 준비했고 지난해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과정이 귀감이 돼 학위를 받을 때 총장 공로상도 함께 받았다.

〈국민일보〉 2018. 5. 14. 17면

“놀라운 열정과 도전 정신”, “너무 감동한”,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같은 표현은

너무 상투적이면서도 과장되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해야 할 기자가 취재대상에게 과도하게 ‘감정이입’된 상태다.

이희아 씨는 선천성 사지기형 장애를 갖고 있다. 손가락이 양손에 두 개씩이고, 허벅지 아래로는 다리가 없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살맛나는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중앙일보〉 2011. 4. 20. S2면

“영규 캐릭터는 제가 오랫동안 봐 온 주변 인물에서 빌려 왔어요. 바보스럽지만 선량한 이 인물을 통해 작가인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기적인 자신을 돌아봤으면 해요.” 문 작가는 영규가 사랑하는 여자로 청각장애인 고미숙(김여진)을 등장시킨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나쁜 이야기가 횡행하는 시대에 오히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더 따뜻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문화일보〉 2011. 4. 13. 28면

장애인은 “살맛나는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바보스럽지만 선량한 이 인물을 통해 작가인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기적인 자신을 돌아봤으면 해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더 따뜻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같은 표현은 장애인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무엇을 위해 또는 다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장애인을 타인을 위한 존재로 ‘타자화’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도 장애를 극복하고 음향 및 녹음기사에 취업한 000 씨나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비장애인이었다면 알지 못했을 시각장애인의 니즈를 정확히 캐치한 센스리더를 만든 000 대표 등의 사례가 있듯이 ...

〈문화일보〉 2018. 7. 6. 37면

‘한빛예술단’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로 생명존중, 배려,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일보〉 2018. 7. 23. C2면

이 기사에서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음향 및 녹음기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온 표현처럼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즉 시각장애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삶”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설명하면서 무턱대고 “장애를 극복하였다”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긍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해야 할 속성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장애와 함께 잘 살기(living well with disability)”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2. 장애인,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어린이로 취급하는 경우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 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정도로 일상생활 적응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2012. 4. 10. 8면

정신지체가 있는 17세 청소년은 행동이 3~4세 아이와 비슷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떼를 쓴다든지, 과자를 주어야만 단순한 심부름을 하며, 구사하는 단어나 문장이 매우 단순하다. <서울신문> 2012. 4. 16. 25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떼쓰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다. <한겨레신문> 2018. 9. 13. 1면

위 사례들처럼, 언론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어린이로 묘사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을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7세 정신연령”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17세 청소년은 행동이 3~4세 아이와 비슷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떼를 쓴다”, 심지어 “발달장애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떼쓰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다”며 자폐성의 특성을 ‘영원한 어린이’의 속성으로 취급한다. 우리 언론이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 관한 보도를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을 정신의 연령과 신체의 연령으로 나누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이런 식으로 아동화하면 이들이 성인이 되

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린이로 취급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표현법은 한 장애인의 인격과 가치를 평가절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3. 사람이 아니라 장애와 보장구에 초점을 맞춘 경우

휠체어 생활자들의 나들이 <국민일보> 2018. 6. 8. 23면

미국 라이트주립대의 바이올린 부교수이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차인홍(54) 교수는 ‘휠체어의 지휘자’로 불린다. <조선일보> 2012. 4. 10. A28

휠체어 바이올린 40년 ... “베토벤 연주 땀 장애도 잊어요” <중앙일보> 2013. 4. 20 8면

어릴 적 사고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된 선우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위원으로 일한다. 이 드라마를 지켜봐온 휠체어 장애인 김정현 씨(32)는 ... 2016년 tvN에서 방영한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조인성은 휠체어 장애인이자 소설가인 서연하 역으로 등장했다. <경향신문> 2018. 9. 11. 22면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생활자”, “휠체어 지휘자”, “휠체어 바이올린” 같은 표현은 보조구에 불과한 휠체어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종속적인 지위에 둔다. 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보장구에 초점을 맞춘 표현은 장애인에게 낙인을 부여한다. “야쿠르트 아줌마”, “주방 아줌마”, “된장녀”, “김치녀” 같은 표현들이 특정한 여성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휠체어 장애인”은 “휠체어 사용자”로 바꾸어 쓰고 “휠체어 생활자”, “휠체어 지휘자”, “휠체어 바이올린”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의학적 용어로 장애를 표현하는 경우

손 씨는 역시 청각장애를 알고 있는 둘째 형을 따라 목공기술을 익혔다.

〈국민일보〉 2011. 4. 20. 27면

이들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이 남성이라는 것이다. ... 수컷 생쥐는 자폐증 환자와 유사한 행동 변화를 보였다.

〈중앙일보〉 2018. 9. 13. B4면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앓는 윤성탄군 〈국민일보〉 2018. 9. 21. 35면

“청각장애를 앓다”, “자폐증을 앓다”, “지적장애를 앓다”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꺾병을 앓을 수는 있지만 청각장애를 앓을 수는 없다. 지적장애 역시 질병이 아니므로 ‘앓는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많은 캠페인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와 ‘질병’은 여전히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한다. 결국 장애인을 환자와 구분하지 않는 셈인데, 그럴 경우 이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병자 역할’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병자처럼 의사와 간호사의 말에 고분고분해야 하고, 환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장애를 앓다’는 표현은 모두 ‘~장애가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5. 장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소아당뇨, 실명, 결핵, 만성신부전... 김정미 부산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35·여)의 인생엔 질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시각장애 1급, 신장장애 2급인 장애인. 김 소장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에게 생긴 고엽제 후유증은 딸에게 유전됐다. 아버지는 늘 다리 신경이 아프다고 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똑같은 증상을 김 소장도 앓았다. ... 김 소장은 11세 때 소아당뇨를 진단받았다. 인슐린 주사를 자주 맞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김 소장에게 또 다른 질병이 생겼다. 24세 때 시력이 갑자기 악화됐다. 순식간에 실명에 이르렀다. 빛조차 감지할 수 없게 됐다. 시각장애 1급.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 6개월간 방에만 틀어박혀서 외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2013. 4. 18. 14면

위 기사는 전체 분량의 3분의 2 정도를 한 장애인의 질병과 손상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고 있다. 이 기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공적이 기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기사는 불필요하게 개인의 병력에 훨씬 큰 관심을 가진다. 아직 미혼인 장애 여성의 병력을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소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을 극단적으로 ‘의료모형’ 관점에서 묘사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형진 씨는 생후 7개월부터 온몸의 근육이 굳는 희소질환 ‘척추성 근위축증’과 싸워왔다. 160cm의 키에 몸무게가 24kg인 신씨는 현재 눈과 입만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에 누워 생활해야 한다. 온몸이 굳어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소년은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갔다. 〈한겨레신문〉 2011. 4. 20. 10면

ㄱ군은 ‘척추측만증, 선천성다발관절만곡증, 선천성소변역류’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1급 지체장애인이다. 말하기, 듣기, 보기 등의 인지능력과 사고와 관련된 지적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몸이 불편해 평생을 휠체어 위에서 살았다. 〈경향신문〉 2013. 4. 17. 14면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북서쪽으로 90km 떨어진 낙후지역 떠이닌 성에 사는 응어는 복합장애를 안고 세상에 나왔다. 9개월 만에 태어나 몸무게는 1.9kg밖에 안 되는 저체중아였다. 윗입술이 갈라진 구순열이라 음식을 씹어도 흘러서 액체 외에는 못 먹었다. 이 때문에 2~3세로 보일 정도로 성장이 더뎠다. 게다가 선천성 망막발달장애로 왼쪽 눈은 실명했고, 오른쪽 눈만 빛을 감지할 정도였으며 정신지체도 안고 있었다. 온 몸이 장애로 뒤덮였던 것이다. 〈한국일보〉 2013. 4. 12. 28면

위 기사들 역시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과도하고 또 불필요하게 상세히 설명한다. 의학에 관한 기사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의 몸 상태를 관음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6. 장애인을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슬픔의 정조로 표현하는 경우

오전 6시 바퀴가 달린 '마운틴 보드'에 몸을 의지한 둘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건넸다. <조선일보> 2018. 7. 30. 26면

현재는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인공달팽이관'에 의지하고 있다. 일반인처럼 완벽하게 들리진 않지만 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엔 아무 지장이 없다.

<서울신문> 2018. 9. 12. 20면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손상 등으로 대부분 사지 마비 수준의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안고 있어 중증 중의 중증 장애인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특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고 스스로 밥을 먹는 건 불가능하다. 생리작용에 대한 의사 표현도 못해 기저귀를 사용한다. <한국일보> 2018. 6. 4. 1면

장애인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휠체어를 주체적으로 '이용해서' 이동하고 생활하는 사람이다. 특히 한국일보는 뇌병변장애인을 “대부분 사지 마비 수준의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안고 있어 중증 중의 중증 장애인이다”고 설명한다.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사지 마비 수준”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비극화하고 있다.

7. 장애를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장애아·소년소녀가장, 노인 성노리개로 전락 <세계일보> 2013. 4. 18. 11면

지적장애 그녀에겐 (그가) '짐승'이었다. <서울신문> 2013. 4. 23. 10면

지적장애인 노숙자를 '노예처럼' 30여 년 간 등골 뻘 일가족 검거

<한겨레신문> 2012. 4. 4. 12면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아이, 먹은 것을 다 토해낸 뒤 그걸 다시 핥아먹는 아이,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아이.

<조선일보> 2011. 4. 30. B4~5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성노리개', '짐승'으로,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노예생활', '등골 뻘'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상황을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한다. 또 자폐증 어린이의 행동을 과도하게 상세히 묘사하여 독자들의 장애인 혐오감을 조장한다. 이런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황색언론 수준의 선정적 표현법이다.

승현이는 태어난 날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출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장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했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2개월 넘도록 소장과 대장을 몸 밖에 꺼낸 채 인공항문(장루)을 달고 살아야 했다. 생후 100일 만에 대소장절제수술을 받고서야 병원을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일보> 2018. 7. 19. 23면

“장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했고”, “소장과 대장을 몸 밖에 꺼낸 채 인공항문(장루)을 달고 살아야 했다” 같은 대목은 한 장애 어린이의 손상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매우 선정적인 표현이다. 한 개인의 손상과 장애를 비극적으로 강조하여 독자의 이목을 끄는 표현방식은 외국 언론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직도 많이 등장한다. 사라져야 할 잘못된 표현법이다.

8.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용어 사용의 경우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우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의 고봉 안나푸르나를 등정했다. <조선일보> 2018. 5. 15 28면

서울역서 시각장애우 공연... 배려-나눔 문화에 앞장 <동아일보> 2018. 7. 23. C2면

“장애우”는 ‘장애인을 친구로 대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에 창조된 용어다. 하지만 오늘날 장애 당사자들은 이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우”는 1인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장애인이 “나는 시각장애우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나는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다”가 되어 형용모순이 발생하기 때
문이다.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써야 한다.

서울 오후 7~8시 45mm 기습 폭우 도심 곳곳 도로 잠겨 교통마비
〈세계일보〉 2018. 8. 29. 12면

광화문 3개 차로 짝 메워 교통마비, 경찰 “불법 아니다” 집회 허가
〈조선일보〉 2018. 9. 13. 12면

“교통마비”는 소아마비, 뇌성마비, 척추마비 등 마비성 장애인을 빗댄 표현이어서 사용
을 자제하고, 대신 “교통체증”이란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영어권에서도 예전에는
“traffic paralysis(교통마비)”라고 하다가 지금은 “traffic jam(교통체증)”이라고 고쳐 쓴
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즉 특정 인구 집단의 외모, 피부색, 건강상태를
빗댄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의 결과였다.

9.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어릴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읽은 기억이 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장님 6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하고는 각자 무엇인지 맞혀 보도록 했다. 상
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갈이 생겼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곡식을 뺀 절구같이 생겼다고 했다. 〈서울신문〉 2018. 9. 3. 29면

우리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 중국은 그대로 서 있는데 한
중 관계가 널뛴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한국일보〉 2018. 9. 28. 30면

“코끼리 다리 만지기”는 서양의 우화에서 유래했는데, 위 기사는 친절하게 그 우화를 자
세히 설명까지 해준다. 이 같은 표현법은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물을 전체적
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인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하 표현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간투자자금은 지금도 여전히 눈먼 돈
이다. 〈경향신문〉 2018. 9. 7. 30면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농부가 내놓은 눈먼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깊은 산골 쪽으로 다녀보았다. 〈동아일보〉 2018. 9. 11. 28면

그렇지 못하면 눈먼 사랑의 열정이 결국 전제권력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일보〉 2018. 9. 28. 23면

따라서 이 구역에서 무인정찰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군은 눈뜬장님이 된다.
〈중앙일보〉 2018. 9. 21. 26면

“눈먼 돈”, “눈먼 땅”, “눈먼 사랑”, “눈뜬장님” 역시 시각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은유하는
표현법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빼앗아도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
현이다. 앞을 볼 수 없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돈이나 땅이어서 막말로 “보는 사람이 입
자다”라는 의미다. 또 “눈먼 사랑”은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비이성적인 사랑을 뜻한다.

스웨덴을 향해서는 핏대를 세웠던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판빙빙에 대해선 꿀
먹은 병어리다. 〈조선일보〉 2018. 9. 28. 34면

국회는 성차별 안전지대? / ‘유난한 여자’ 눈총에 병어리 냉가슴
〈세계일보〉 2018. 9. 15. 6면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같은 표현은 청각장애인(농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은유이다. 이 같은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언론사 데스크에서 이런 것이 걸려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

박영선 의원 등 6~7명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 분리) 완화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에 병어리였던 당의 관행을 깬다. 〈중앙일보〉 2018. 9. 15. 30면

오십 이전의 나는 한 마리 개에 지나지 않았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
고 짖으면 따라서 짖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게 짖은 까닭을 묻는다면 병어리

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2018. 9. 14. B7면

“병어리”를 은유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 두 문장에서는 직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지각 있는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신문지상에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올린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우리 언론의 단면이다.

예전 얹은뱅이 밥상에서는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TV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으시고 ... <경향신문> 2018. 6. 11. 28면

기속사는 공짜였다. 얹은뱅이 탁자 하나에 텔레비전을 놓아둔 동료 방에 놀러 가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8. 6. 13. 28면

“얹은뱅이 밥상”, “얹은뱅이 탁자”는 예전부터 일상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지만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

다음 달 예정된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역시 절름발이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중앙일보> 2018. 7. 23. 30면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며 “인권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8. 6. 15. 12면

중형 크기의 차체에 소형 엔진을 얹어 걸은 멀쩡하지만,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절름발이들이었다. <한국일보> 2018. 6. 20. 19면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절름발이”란 단어를 잘못된 정책이나 망가진 자동차에 비유하여 사용한다. 언론이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 그 독자들도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다.

저자소개

윤삼호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2000년 장애운동을 시작하여 국내 최초의 장애학 서적 <장애의 정치>을 번역하였다. 현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황인욱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교육과 공동체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대안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강원도 사북·고한 폐광지역의 재생에 힘을 보태왔으며 소수자 인권과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장애사 집필에 참여하였다. 2018년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실태 조사연구>에도 국가 폭력의 생존자로서 증언을 남겼다.

다른 것과 이상한 것

인쇄일 | 2018년 11월 20일

발행일 | 2018년 11월 20일

발행인 | 이범재

주소 | (072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빌딩 402-1호

전화 | (070) 4293-7816 팩스 | (02) 833-8415

웹사이트 | www.ableacademy.co.kr

인쇄처 | 사명인쇄

이 책자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사)장애인아카데미가 만들었습니다.